니트족 자립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2021.09

목 차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요약

3. 설문조사 결과

4. 결과정리

[별첨] 설문조사 내용

니트족 자립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사회비행자

1. 설문조사 개요

1) 목적
- 현 자립 프로그램의 문제 파악
- 대안적 니트족 청년 자립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기획·운영

2) 참여 인원
- 217명

3) 설문 기간
- 2020년 4월 ~ 2020년 6월 (약 2개월)

4) 참여 대상
- 만 19세~39세 청년
- 니트족
- 잠재적 니트족 (회사에 다니지만, 퇴사하고 싶거나 할 예정인 사람)
- 활동형 니트족 (취업·창업 외에 자신의 일을 하지만 수익화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설문 방법
-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익명 설문 진행

6) 주최·주관
- 사회비행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 설문조사 결과 요약

1) 서론

니트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지만, 대다수가 **취업 위주의 솔루션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처방'은 니트족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 이 없는 것이 원인이 아닐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무엇이 니트족을 일과 거리 두게 만들고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자원은 무엇일까? 이 설문에서 이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온전한 답을 찾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노동으로의 진입 여부와 그 안에서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니트족 자립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 한다.

니트족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우리는 기존의 니트 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와 실제로 현장에서 연구와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된 통찰을 바탕으로 5가지의 니트 유형을 나누어 설문을 진행했고 유형은 다음과 같다.[1)]

1. 잠재적 니트 A : 퇴사 의지가 있고 플랜 B가 있음
2. 잠재적 니트 B : 퇴사 의지가 있고 플랜 B가 없음
3. 활동형 니트 : (직장과 사업이 아닌) 자신의 일을 하고 있지만, 수익화가 어려운 사람
4. 구직 니트 : 취업 등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명확히 목표가 없는 사람
5. 비구직 니트 : 교육(직업, 학교 등)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니트족 유형에 관한 사전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이번 설문조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해당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획일적인 자립 프로그램은 다양한 유형에 니트족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가설 2. 기존에 니트족 정책은 니트족의 취업으로의 진입장벽 혹은 거부감을 고려하지 않는다.
가설 3. 특정 유형의 니트족은 취업에 거부감이 있으며, 자신의 고유한 일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가설 4. 정규 교육 과정 및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가 니트족의 자기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설 5. 자기 이해가 부족한 니트족 유형은 직업 교육보다는 갭이어(Gap year)[2)]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위 5가지 가설을 기반으로 하여 아래 설문 조사를 구성하였다. 총 217명의 니트족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고, 우리가 설정한 가설과 일치하거나 근거나 충분치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추론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니트족에게 적합한 자립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1) 이와 같은 유형화가 절대적이라거나 사회비행자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화가 가능하다. 이번에는 자립 프로그램의 개설이라는 목표 때문에 이와 같은 유형화를 선택하였다.

2) 학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봉사, 여행, 진로 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의 활동을 체험하며 흥미와 적성을 찾고 앞으로의 진로를 설정하는 기간.

2) 전체 결과 요약

(1) 대학진학 요인

- 2)-(2) '귀하가 대학진학을 했을 경우 전공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95개 응답)

NO	응답	응답률	해설
1	'점수에 맞춰서 선택하였음'	28.7%	해당 응답에서는 '점수에 맞춰서 선택하였음'이 28.7%(56명)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다음으로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선택하였음'이 19.5%(38명)이고, '전공이 취업에 유리하여 선택하였음',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 환경에 의해 선택하였음' 이 각각 18.5%(36명)로 높은 응답을 보인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65.7%(128명)가 외부적 요인(취업, 부모님, 선생님, 성적 등)으로 인해 전공을 선택하였고, 내부적(적성, 흥미, 학문적 관심 등) 요인으로 전공을 선택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31.8%(62명)밖에 되지 않았다.
2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선택하였음'	19.5%	
3	'전공이 취업에 유리하여 선택하였음'	18.5%	
4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 환경에 의해 선택하였음'	18.5%	

- 2)-(4) '대학교 이전까지 교육과정 및 학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귀하의 흥미·적성 혹은 꿈을 찾아주려고 노력했나요?' (211개 응답)

NO	응답	응답률	해설
1	'매우 그렇다'	9%	해당 응답에서는 '노력을 하였다'라는 긍정적인 응답 25.1%(53명)보다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9%(101명)로 압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2	'그렇다'	16.1%	
3	'보통이다'	27%	
4	'그렇지 않다'	25.6%	
5	'전혀 그렇지 않다'	22.3%	

- **위 결과를 통해 왜 대다수 응답자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전공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과 가정에서 흥미나 적성 등 내부적 요인으로 전공 및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라 유추할 수 있다.**

(2)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

- 3)-(1) ‘귀하는 정규 교육 외에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217개 응답)

NO	응답	응답률	해설
1	‘예’	34.1%	해당 응답에서는 34.1%(74명)에서 2/3에 가까운 응답자가 정규 훈련 외에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2	‘아니오’	65.9%	

- 3)-(2) ‘귀하가 직업훈련을 받았을 경우 어떤 직업훈련을 받으셨나요?’ (76개 응답)

NO	응답	응답률	해설
1	‘정부 직업훈련 프로그램’	60.5%	해당 응답에서는 응답자 중 대부분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자체 직업훈련 프로그램’	31.6%	
3	‘민간기업 직업훈련 프로그램’	21.1%	

- 3)-(4) ‘귀하가 받은 직업훈련의 불만족에 따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52개 응답)

NO	응답	응답률	해설
1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없었다’	44.2%	해당 응답에서는 응답자 중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없었다’가 44.2%(23명), ‘커리큘럼의 문제(양이 많다,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 같은 내용이 반복적이었다 등)’가 34.6%(18명), ‘취업 연계 등의 지원이 없었다’가 32.7%(17명)로 높게 나타났다.
2	‘커리큘럼의 문제’	34.6%	
3	‘취업 연계 등의 지원이 없었다’	32.7%	

- **2/3에 가까운 응답자가 직업훈련에 진입하지 않았다. 직업훈련을 받은 대부분 응답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이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로는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없었다’가 가장 많았다. 또한, 커리큘럼의 문제, 취업 연계 등의 추가지원이 없었음도 만족도 하락의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3) 니트족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인식

- 5)-(1) '귀하는 직업훈련 외에 니트족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이 귀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17개 응답)

NO	응답	응답률	해설
1	'예'	88.9%	해당 응답에서는 대다수 응답자가 니트족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이 응답자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	'아니오'	11.1%	

- 5)-(2) '귀하가 니트족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1개 응답)

NO	응답	응답률	해설
1	'자아탐구 과정 없이 일하면 무기력증이나 우울증 등의 문제가 오기 쉬우므로'	53.9%	해당 응답에서는 위 응답에서 '예'라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 '자아탐구 과정 없이 일하면 무기력증이나 우울증 등의 문제가 오기 쉬우므로'가 53.9%(103명), '기존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일과 연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가 45.5%(87명)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응답자가 자아탐구, 적성 및 흥미 탐색을 통한 직업적 연결과 관련된 니트족 자립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	'기존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일과 연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45.5%	
3	'취업, 창업이 아닌 다른 방식의 일에 대한 수요 때문에'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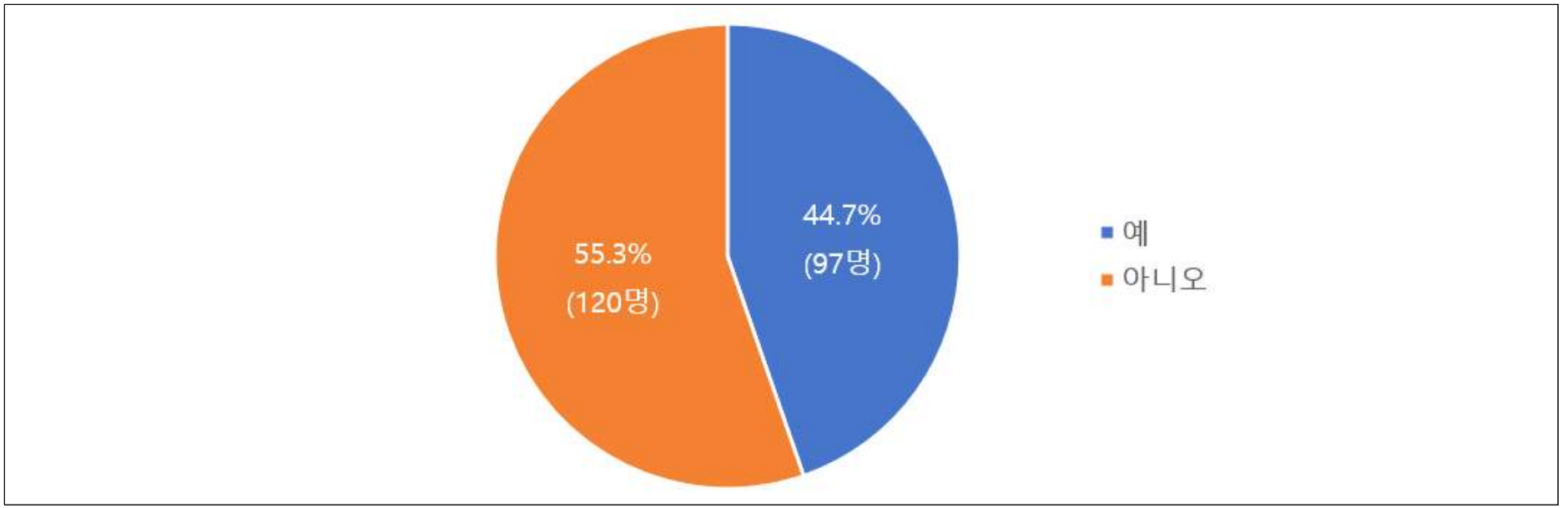
- 이를 통해 자아 탐색 및 진로 방향과 직업 안에서의 흥미 적성이 일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하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3. 설문조사 결과

1) 기본 설문

(1) 당신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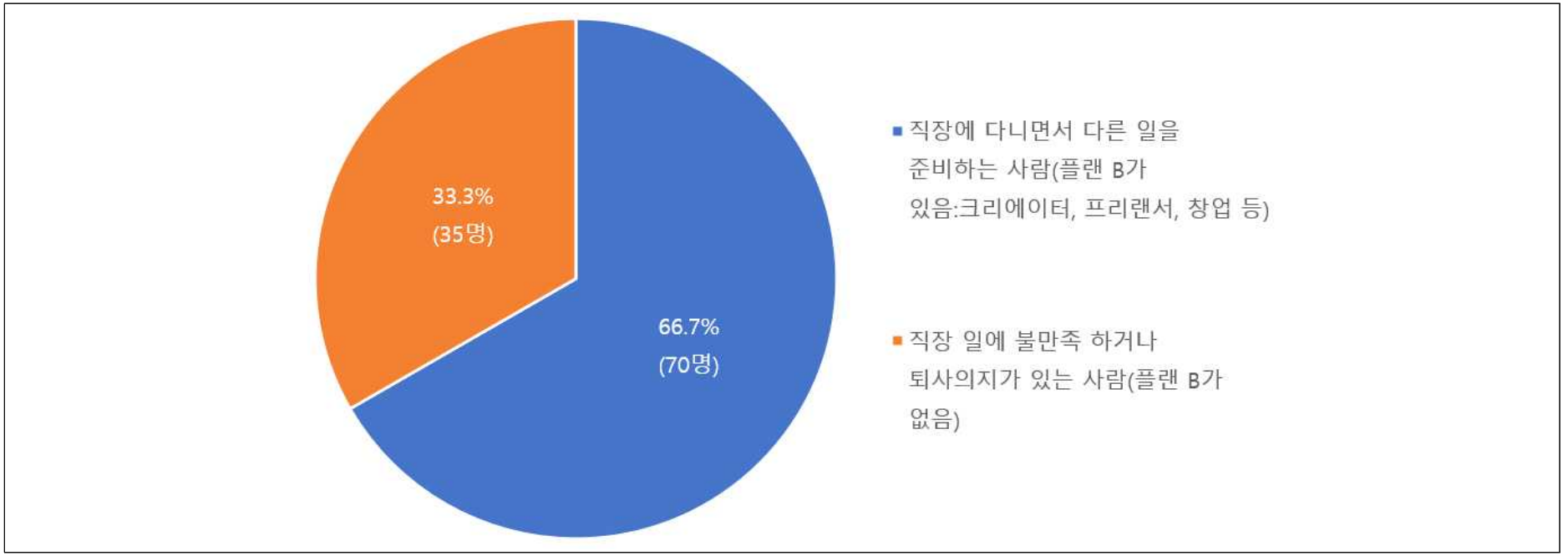
- 217명 응답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44.7%(97명)가 ‘예’, 55.3%(120명)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2) (‘예’ 응답 시) 귀하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체크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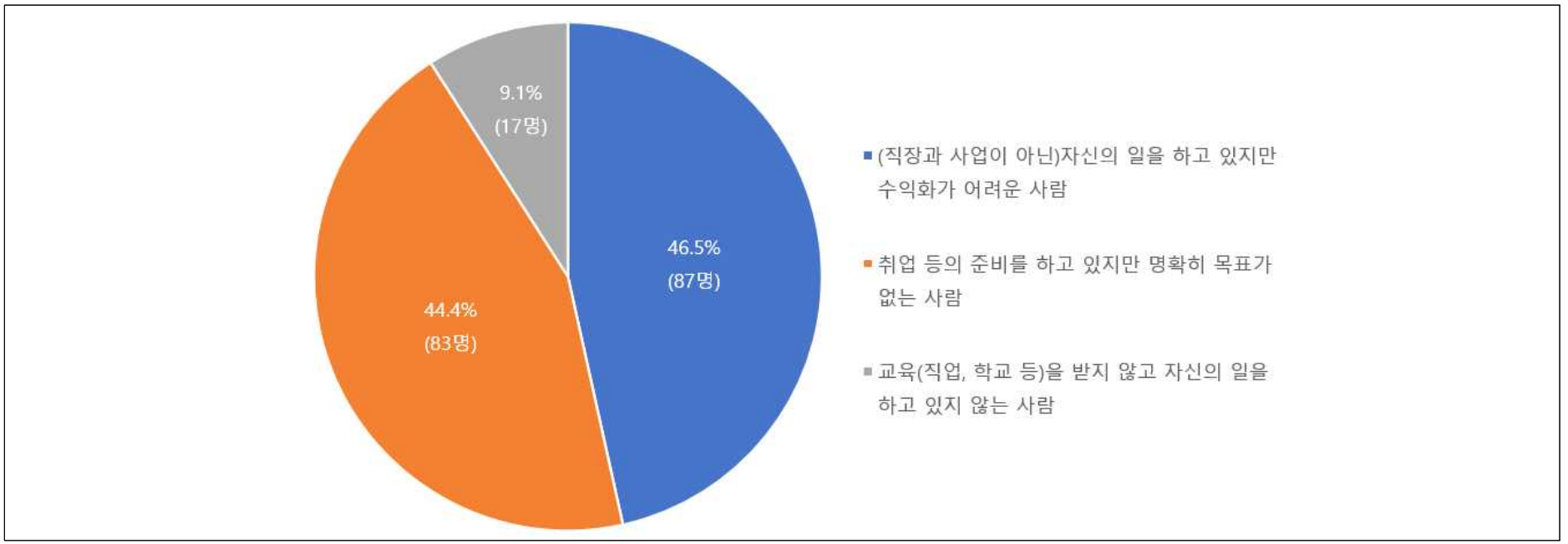
- 105명 응답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66.7%(70명)가 ‘직장에 다니면서 다른 일을 준비하는 사람(플랜 B가 있음:크리에이터, 프리랜서, 창업 등)’, 33.3%(35명)가 ‘직장 일에 불만족하거나 퇴사 의지가 있는 사람(플랜 B가 없음)’에 응답하였다.

(3) (‘아니오’ 응답 시) 귀하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체크해주세요.

- 187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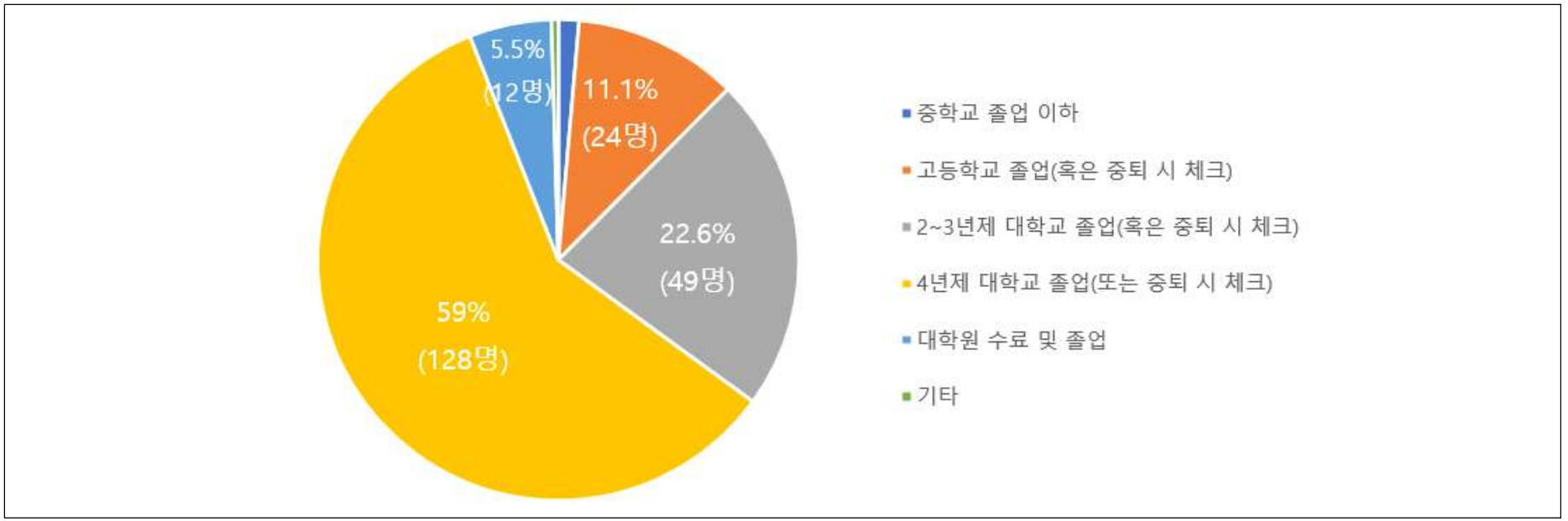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46.5%(87명)가 ‘(직장과 사업이 아닌)자신의 일을 하고 있지만, 수익화가 어려운 사람’, 44.4%(83명)가 ‘취업 등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명확히 목표가 없는 사람’, 9.1%(17명)가 ‘교육(직업, 학교 등)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 응답하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일반적으로 니트족이라 불리는 집단군임에도, **자신의 고유한 일을 하거나 취업 준비 등 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90.9%(170명)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2) 정규 교육 경험 및 만족도

(1) 귀하의 최종 학력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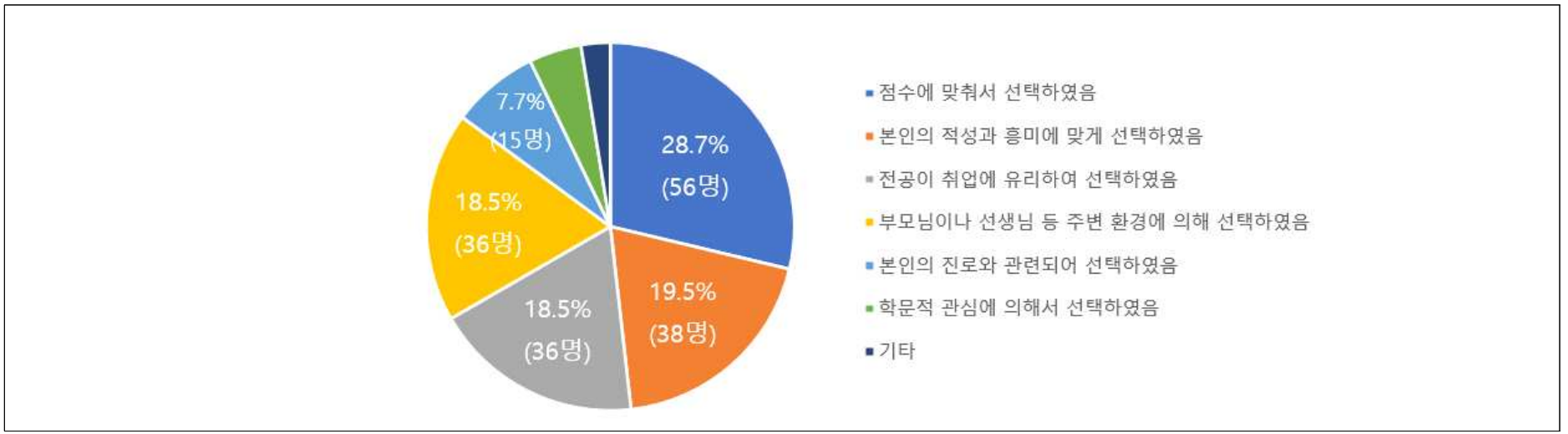
- 217명 응답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1.4%(3명)가 '중학교 졸업 이하', 11.1%(24명)가 '고등학교 졸업(혹은 중퇴 시 체크)', 22.6%(49명)가 '2~3년제 대학교 졸업(혹은 중퇴 시 체크)', 59%(128명)가 '4년제 대학교 졸업(또는 중퇴 시 체크)', 5.5%(12명)가 '대학원 수료 및 졸업', 0.5%(1명)가 '기타'에 응답하였다. **이 중 '4년제 대학교 졸업(또는 중퇴 시 체크)'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2~3년제 대학교 졸업(혹은 중퇴 시 체크)'이 가장 높았다. 그러므로 약 81.6%(189명)의 응답자가 2~3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혹은 중퇴인 것을 알 수 있다.**

(2) 귀하가 대학진학을 했을 경우 전공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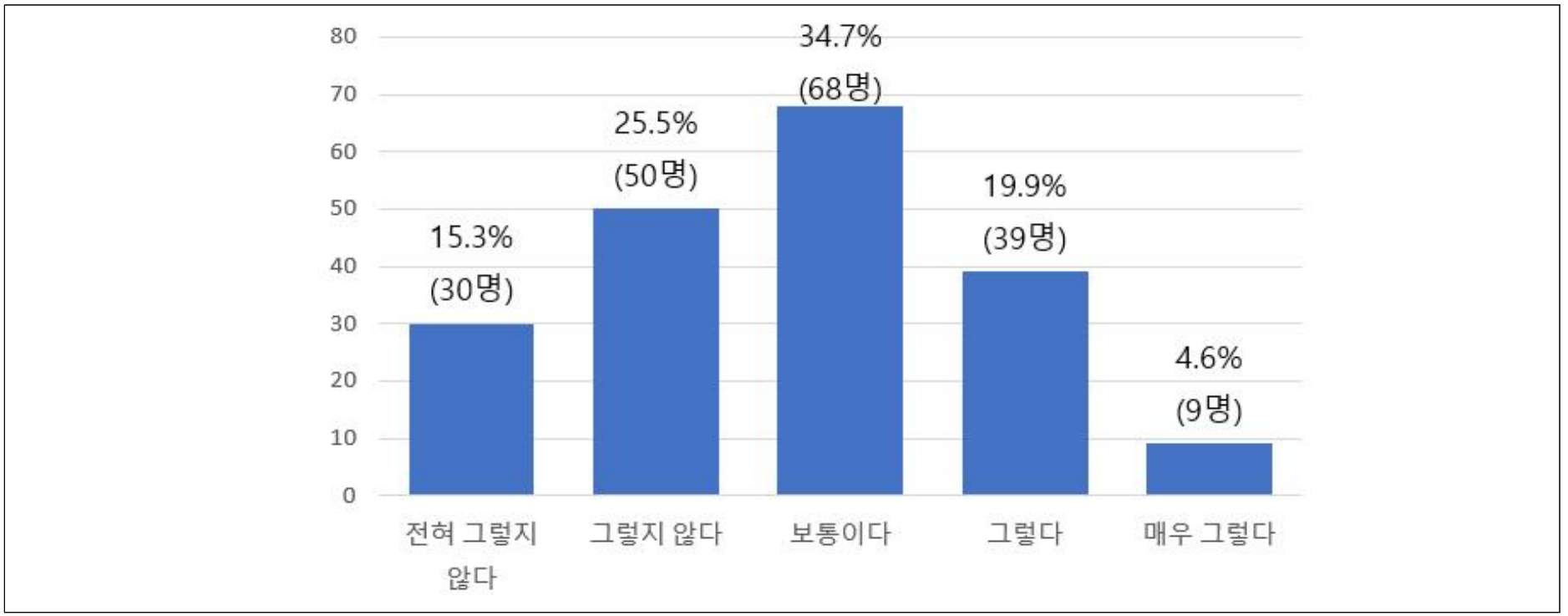
- 195명 응답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28.7%(56명)가 '점수에 맞춰서 선택하였음', 19.5%(38명)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선택하였음', 18.5%(36명)가 '전공이 취업에 유리하여 선택하였음', 18.5%(36명)가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 환경에 의해 선택하였음', 7.7%(15명)가 '본인의 진로와 관련되어 선택하였음' 4.6%(9명)가 '학문적 관심에 의해서 선택하였음', 2.5%(5명)가 '기타'에 응답하였다. '기타'의 응답으로는 사이버대학 진학, 2회 이상 다른 이유로 전공을 택함, 복합적인 이후, 단순 졸업 목적 등이 있다. **이 중 '점수에 맞춰서 선택하였음'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다음으로 '전공이 취업에 유리하여 선택하였음'과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 환경에 의해 선택하였음'과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선택하였음'이 높은 응답을 보인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65.7%(128명)가 외부적 요인(취업, 부모님, 선생님, 성적 등)으로 인해 전공을 선택하였고, 내부적(적성, 흥미, 학문적 관심 등) 요인으로 전공을 선택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31.8%(62명)밖에 되지 않았다.**

(3) 대학에서 수업 혹은 기타프로그램이 귀하의 흥미·적성과 직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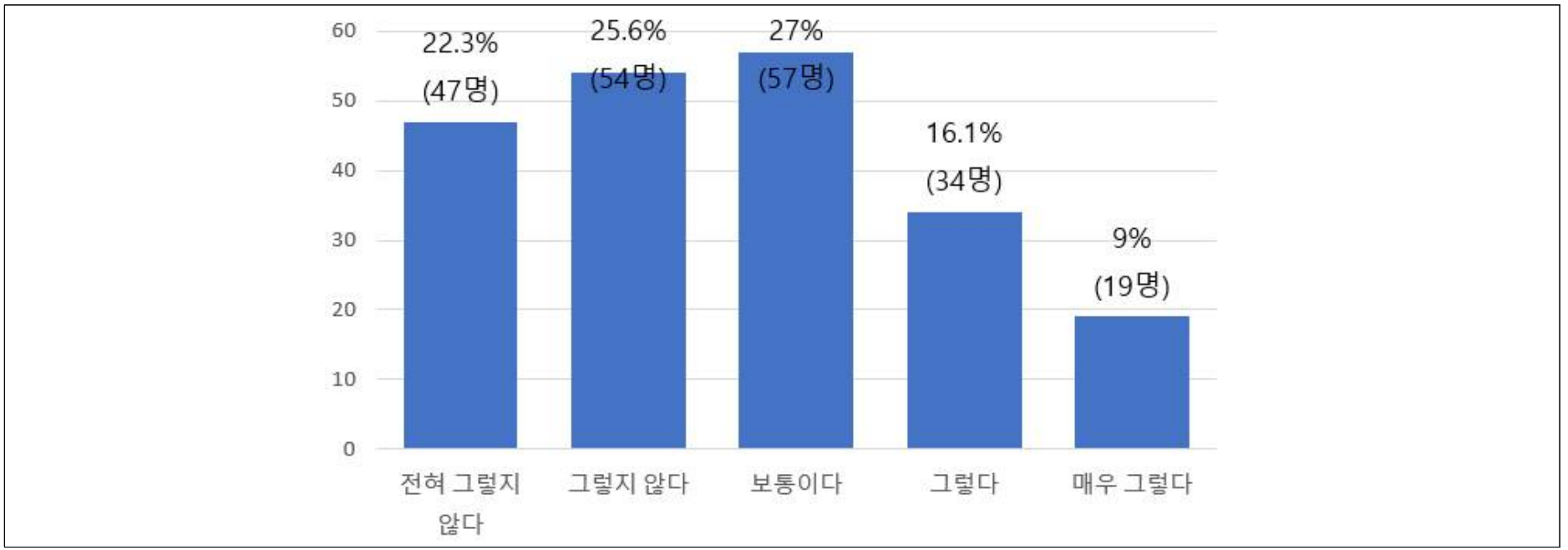
- 196명 응답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15.3%(30명)가 '전혀 그렇지 않다', 25.5%(50명)가 '그렇지 않다', 34.7%(68명)가 '보통이다', 19.9%(39명)가 '그렇다', 4.6%(9명)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다. **위 응답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었다'는 긍정적인 응답 24.5%(48명)보다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40.8%(80명)로 2배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다.**

(4) 대학교 이전까지 교육과정 및 학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귀하의 흥미·적성 혹은 꿈을 찾아주려고 노력했나요?

- 211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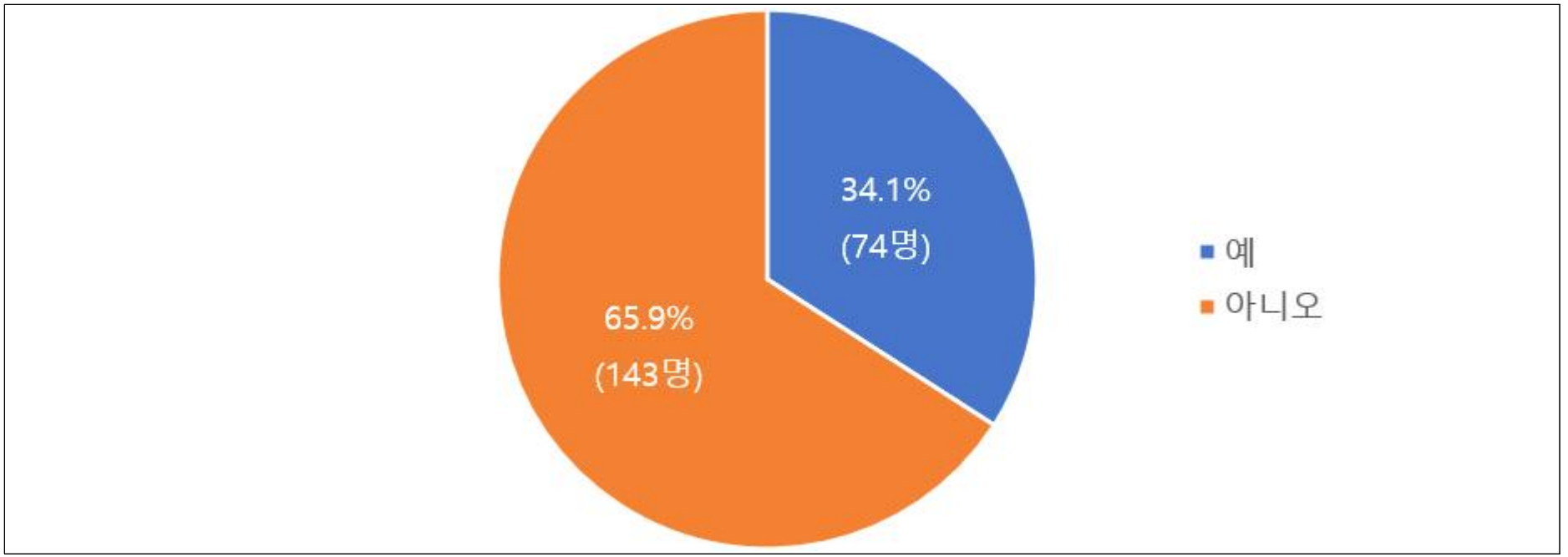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22.3%(47명)가 '전혀 그렇지 않다', 25.6%(54명)가 '그렇지 않다', 27%(57명)가 '보통이다', 16.1%(34명)가 '그렇다', 9%(19명)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다. 위 응답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였다'라는 긍정적인 응답 25.1%(53명)보다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9%(101명)로 압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위의 질문 '귀하가 대학진학을 했을 경우 전공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의 결과와 상관관계를 가지며, 왜 대다수 응답자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전공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3) 직업훈련 경험 여부와 만족도

(1) 귀하는 정규 교육 외에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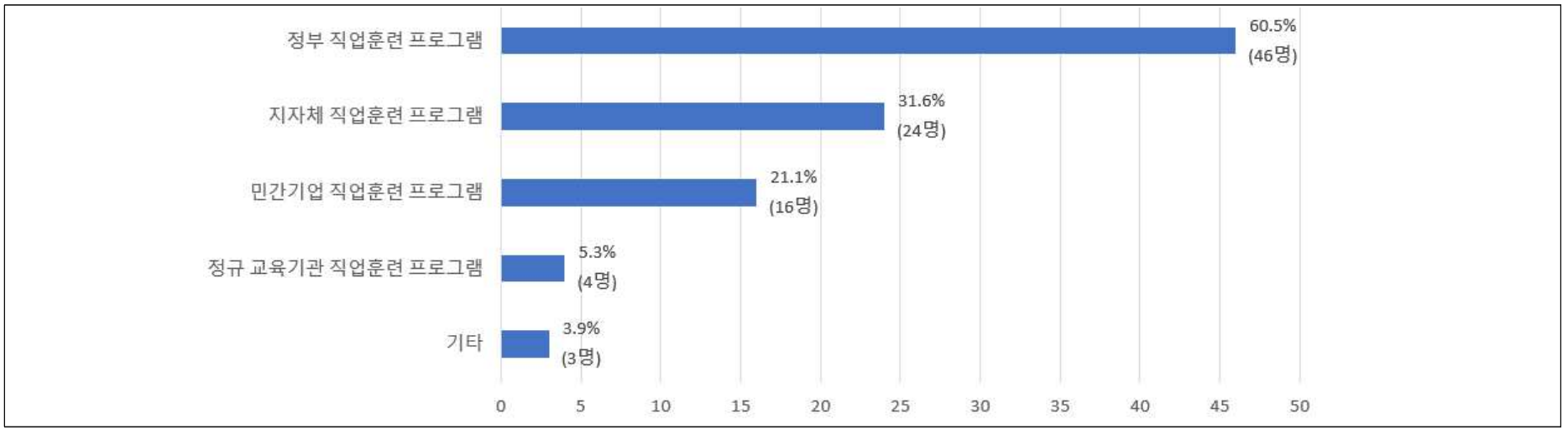
- 217명 응답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34.1%(74명)가 '예', 65.9%(143명)가 '아니오'에 응답하였다. **2/3에 가까운 응답자가 정규 훈련 외에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2) 귀하가 직업훈련을 받았을 경우 어떤 직업훈련을 받으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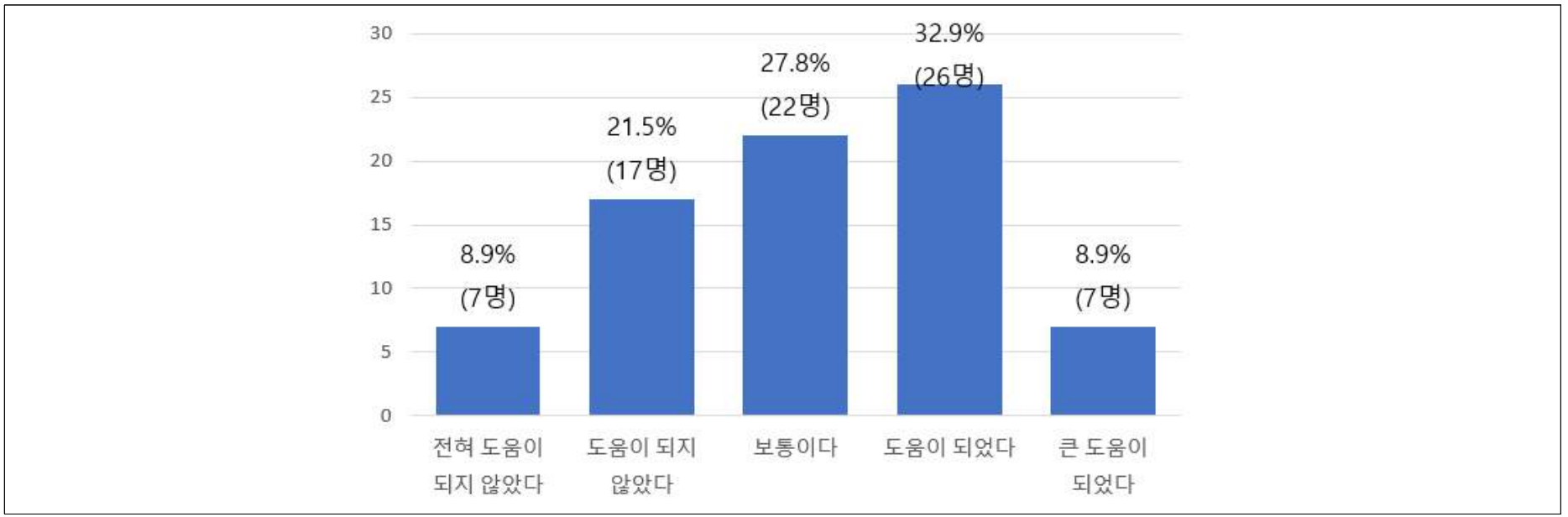
- 76명 / 93개 응답 (중복 응답 가능)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60.5%(46명)가 '정부 직업훈련 프로그램 (ex. 취업 성공 패키지, 국비 지원 취업)', 31.6%(24명)가 '지자체 직업훈련 프로그램 (ex. 기획자 양성 과정)', 21.1%(16명)가 '민간기업 직업훈련 프로그램', 5.3%(4명)가 '정규 교육기관 직업훈련 프로그램', 3.9%(3명)가 '기타'에 응답하였다. '기타'의 응답으로는 일반 사설 교육기관에 대한 응답이 있다. **이 중 '정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3) 귀하의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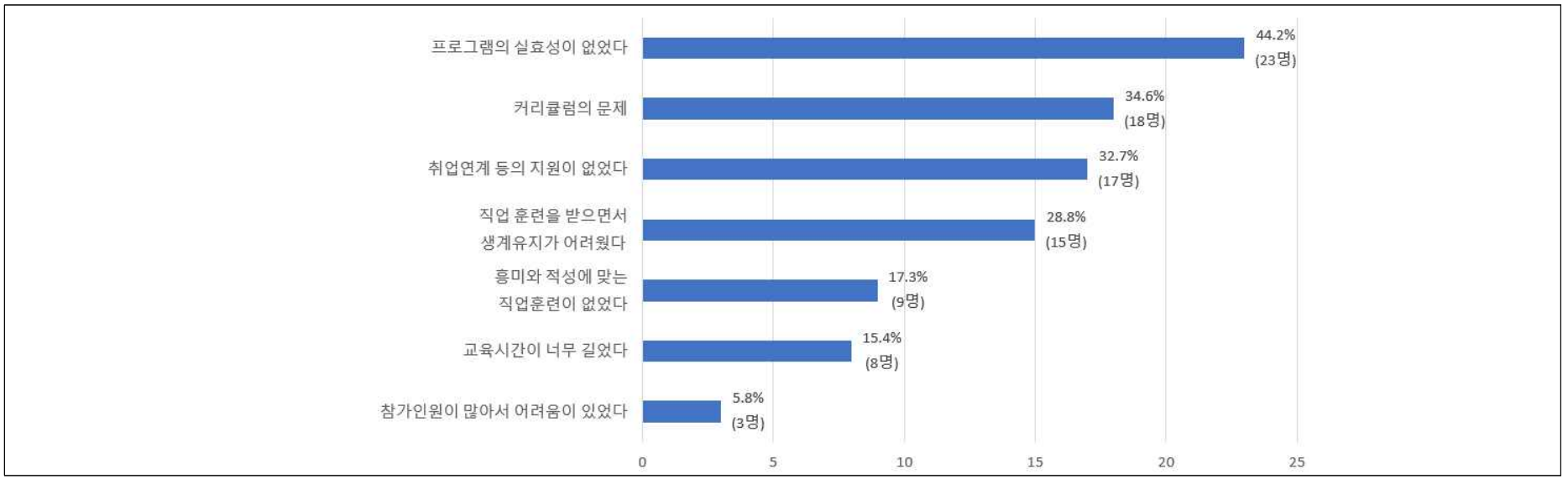
- 79명 응답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8.9%(7명)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1.5%(17명)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7.8%(22명)가 '보통이다', 32.9%(26명)가 '도움이 되었다' 8.9%(7명)가 '큰 도움이 되었다'에 응답하였다. **위 응답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4) (만족도가 1, 2일 경우) 귀하가 받은 직업훈련의 만족도에 따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52명 / 93개 응답 (중복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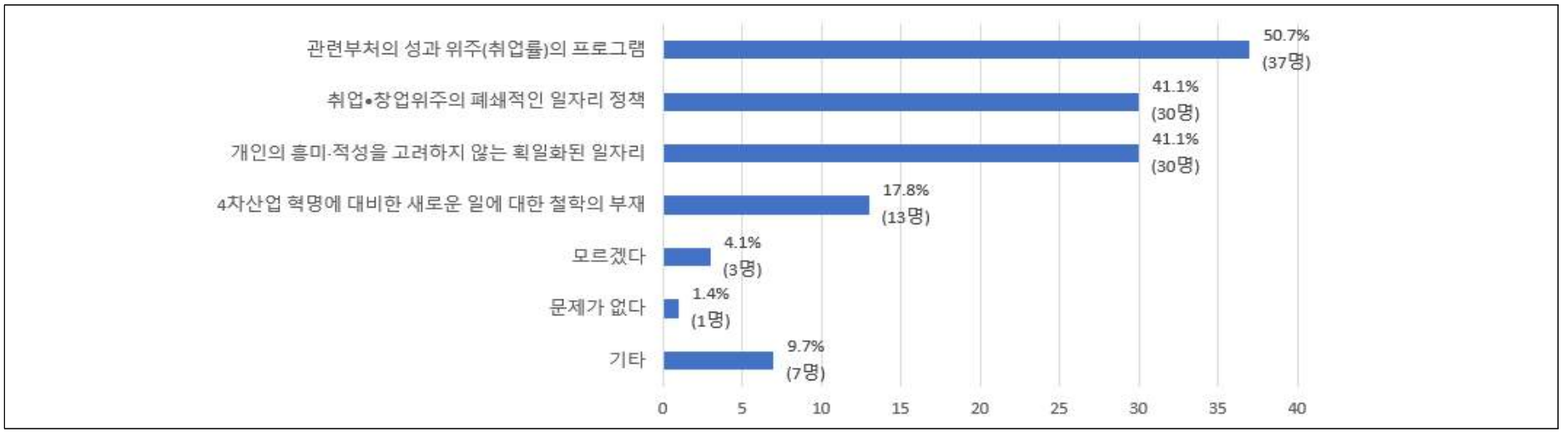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44.2%(23명)가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없었다', 34.6%(18명)가 '커리큘럼의 문제(양이 많다,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 같은 내용이 반복적이었다 등)', 32.7%(17명)가 '취업 연계 등의 지원이 없었다', 28.8%(15명)가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웠다', 17.3%(9명)가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이 없었다', 15.4%(8명)가 '교육시간이 너무 길었다', 5.8%(3명)가 '참가인원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다'에 응답하였다. **이 중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없었다'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커리큘럼의 문제'와 '취업 연계 등의 지원이 없었다'가 높은 응답을 보였다.**

대다수 참가자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이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로는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없다'**에 응답하였다. 또한, **커리큘럼**의 **문제, 취업 연계 등의 추가지원이 없었음**도 만족도 하락의 요인으로 꼽혔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웠다**는 답변이다. 교육기관이나 훈련의 종류별로 다르지만, 때에 따라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최대 주5일 8시간씩 이루어지는 때도 있는데, 참여자가 들이는 시간에 비해 수당이 적절치 않은 것처럼 보인다.

(5) 정부의 직업훈련 정책이 가진 문제는 왜 나온다고 생각하나요?

- 73명 / 121개 응답 (중복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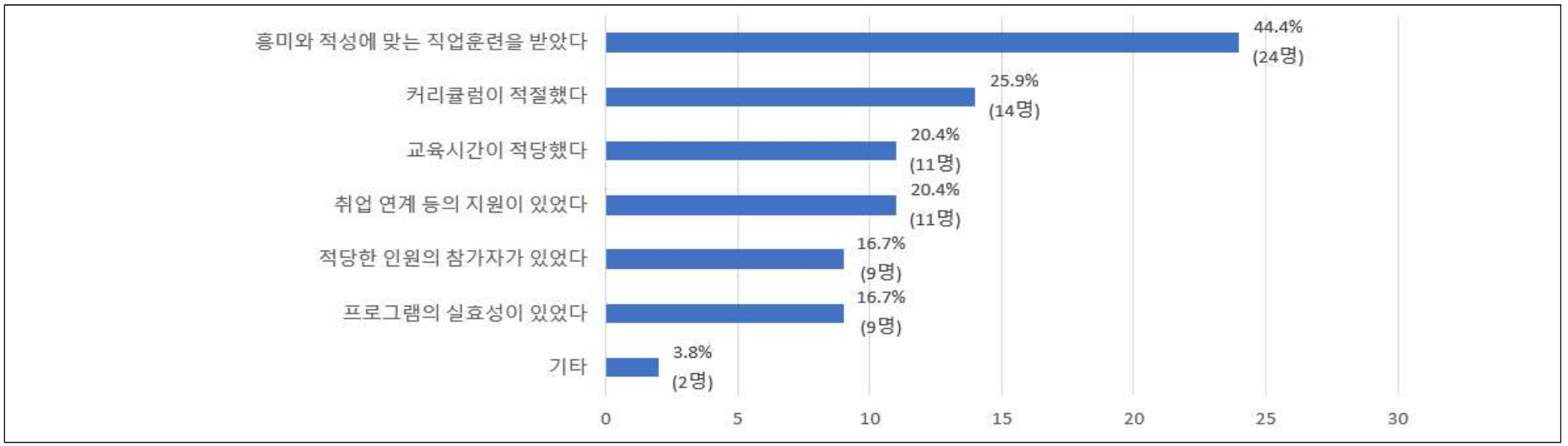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50.7%(37명)가 '관련 부처의 성과 위주(취업률)의 프로그램', 41.1%(30명)가 '취업•창업 위주의 폐쇄적인 일자리 정책', 41.1%(30명)가 '개인의 흥미·적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화된 일자리', 17.8%(13명)가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일에 대한 철학의 부재', 4.1%(3명)가 '모르겠다', 1.4%(1명)가 '문제가 없다', 9.7%(7명)가 '기타'에 응답하였다. '기타'에 대한 응답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강의가 아닌 단순 기술 위주의 강의', '일자리의 부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큼 수업의 질이 좋지 않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음', '취업과 연계되지 않음' 등이 있다. 이 중 **'관련 부처의 성과 위주(취업률)의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다. 그다음으로 **'취업•창업 위주의 폐쇄적인 일자리 정책'**과 **'개인의 흥미·적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화된 일자리'**가 높은 응답을 보인다.

위 응답을 종합해 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한 직업훈련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이유는 **개인의 흥미나 적성을 고려하지 않는 성과 위주, 취·창업 위주 프로그램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6) (만족도가 3, 4, 5일 경우) 귀하가 받은 직업훈련의 만족도에 따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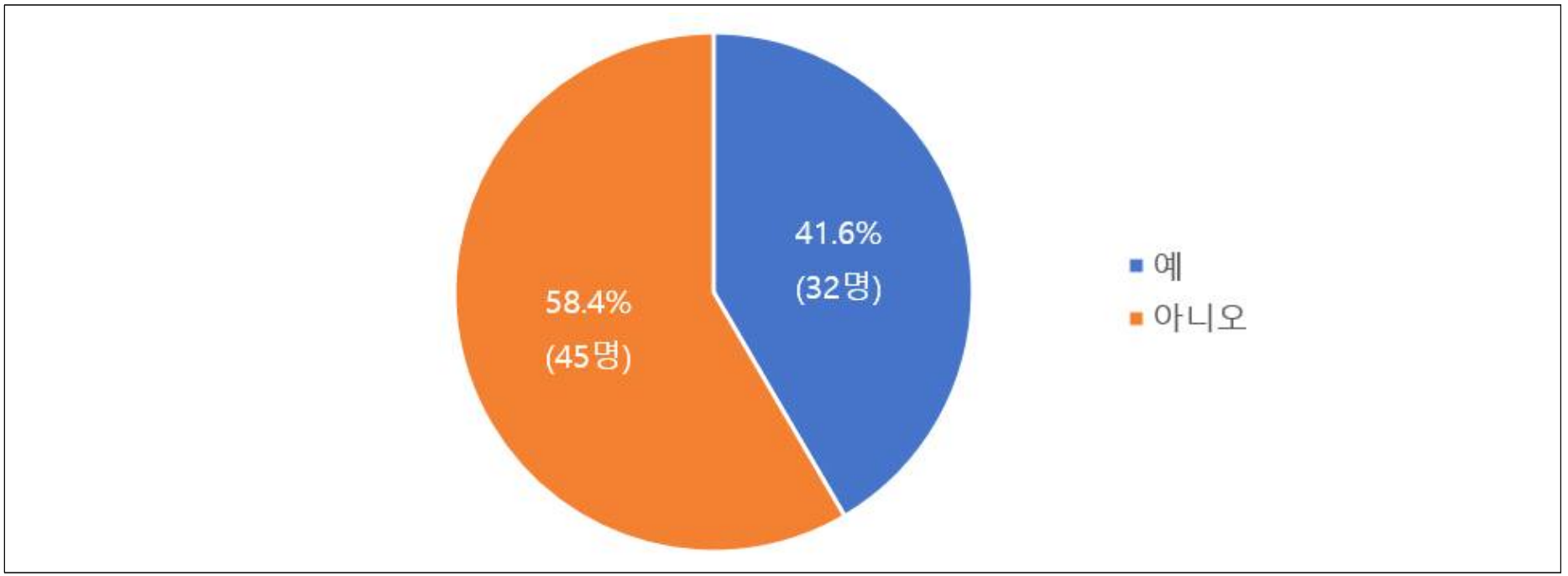
- 54명 / 80개 응답 (중복 응답 가능)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44.4%(24명)가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았다.', 25.9%(14명)가 '커리큘럼이 적절했다.', 20.4%(11명)가 '교육시간이 적당했다.', 20.4%(11명)가 '취업 연계 등의 지원이 있었다.', 16.7%(9명)가 '적당한 인원의 참가자가 있었다.', 16.7%(9명)가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있었다.', 3.8%(2명)가 '기타'에 응답하였다. '기타'에 대한 응답으로는 교육 내용의 전문성, 배움에 도움이 됨 등이 있다. **이 중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았다'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다.**

(7) 귀하가 받은 직업훈련을 통해 실제 유사 분야의 직업을 구직하게 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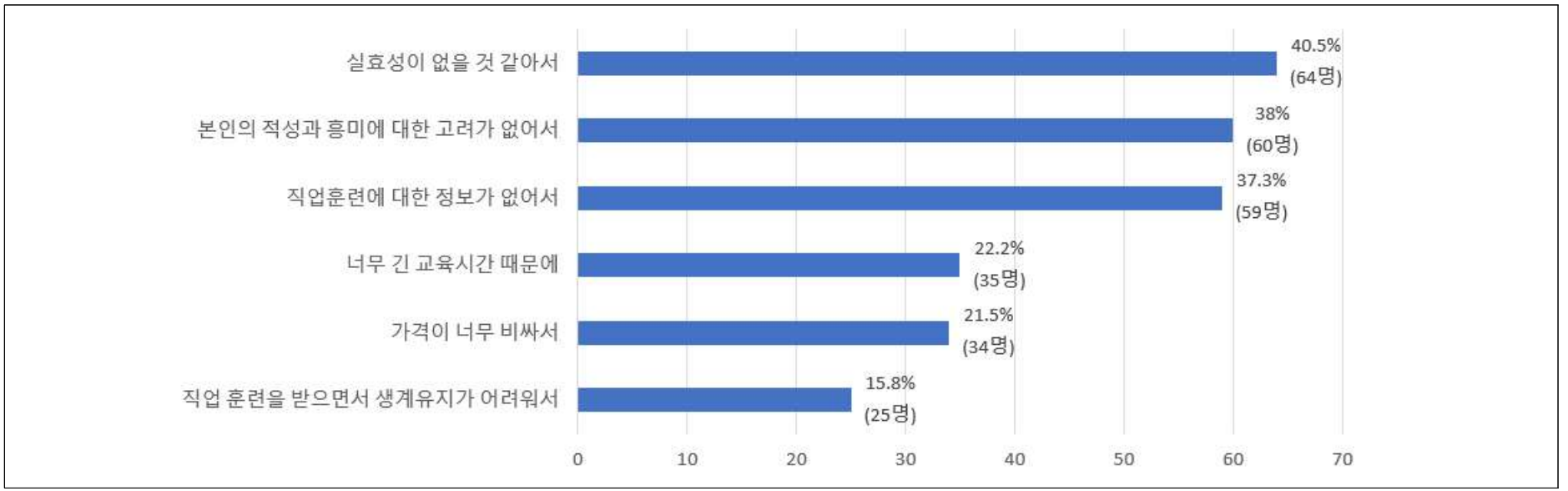
- 77명 응답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41.6%(32명)가 '예', 58.4%(45명)가 '아니오'에 응답하였다.

(8)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

- 158명 / 277개 응답 (중복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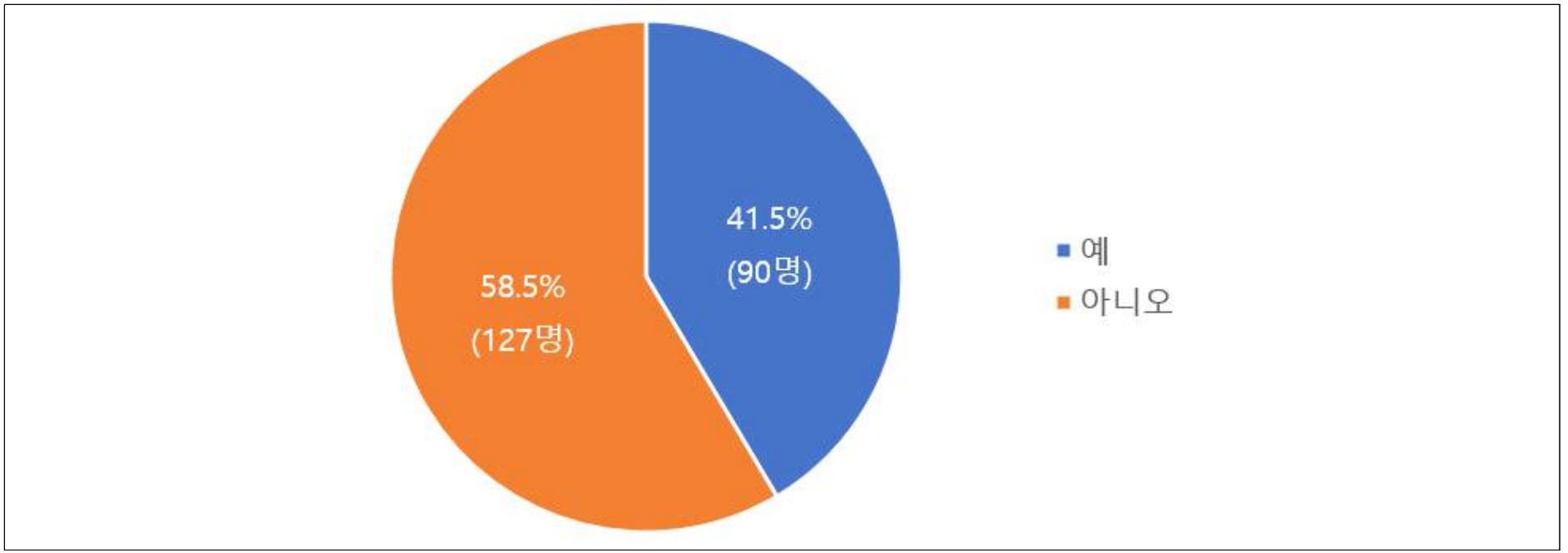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40.5%(64명)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38%(60명)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37.3%(59명)가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22.2%(35명)가 '너무 긴 교육시간 때문에' 21.5%(34명)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15.8%(25명)가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에 응답하였다. 이 중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다. 그다음으로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가 높은 응답을 보인다.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도 위의 '정부의 직업훈련 정책이 가진 문제는 왜 나온다고 생각하나요?'의 질문과 연결해 봤을 때 '실효성이 없었다', '적성과 흥미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등인 것으로 봐서 **직업훈련 불만족 요인과 직업훈련으로의 진입장벽 요인이 유사한 특성**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직업에 대한 가치 인식

(1) 나는 최근 3년 이내에 직업 혹은 자아에 대한 객관적 평가(진로검사, 진로상담 등)를 받아 본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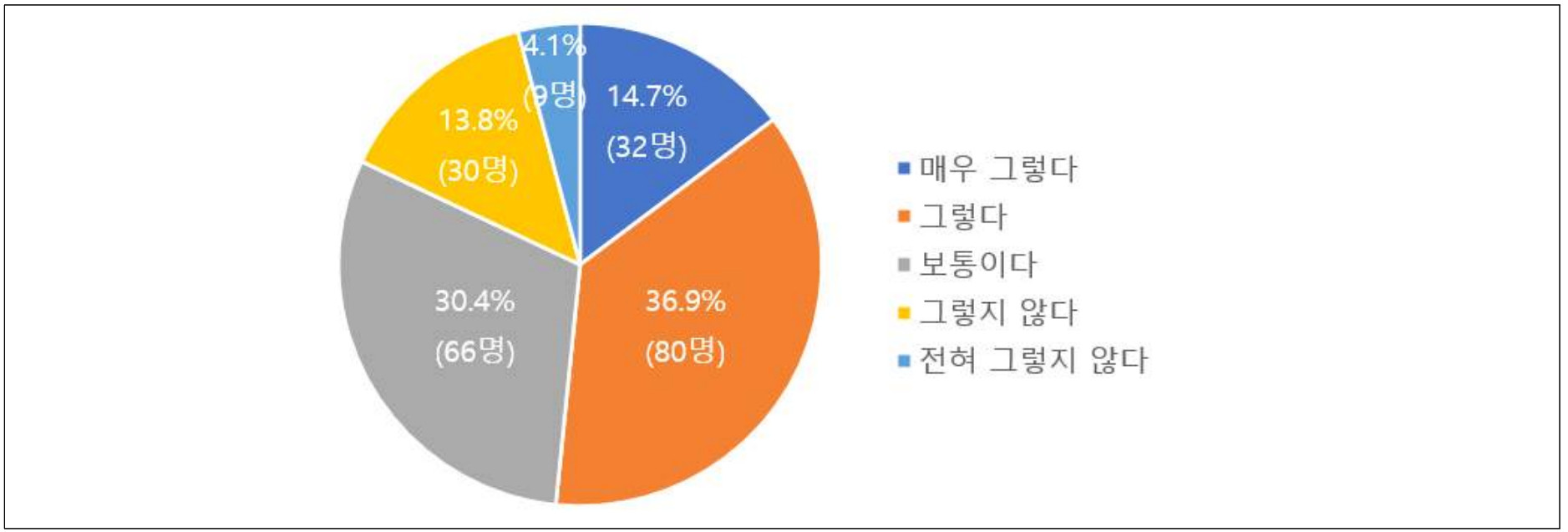
- 217명 응답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41.5%(90명)가 '예', 58.5%(127명)가 '아니오'에 응답하였다.

(2) 나는 나의 흥미·적성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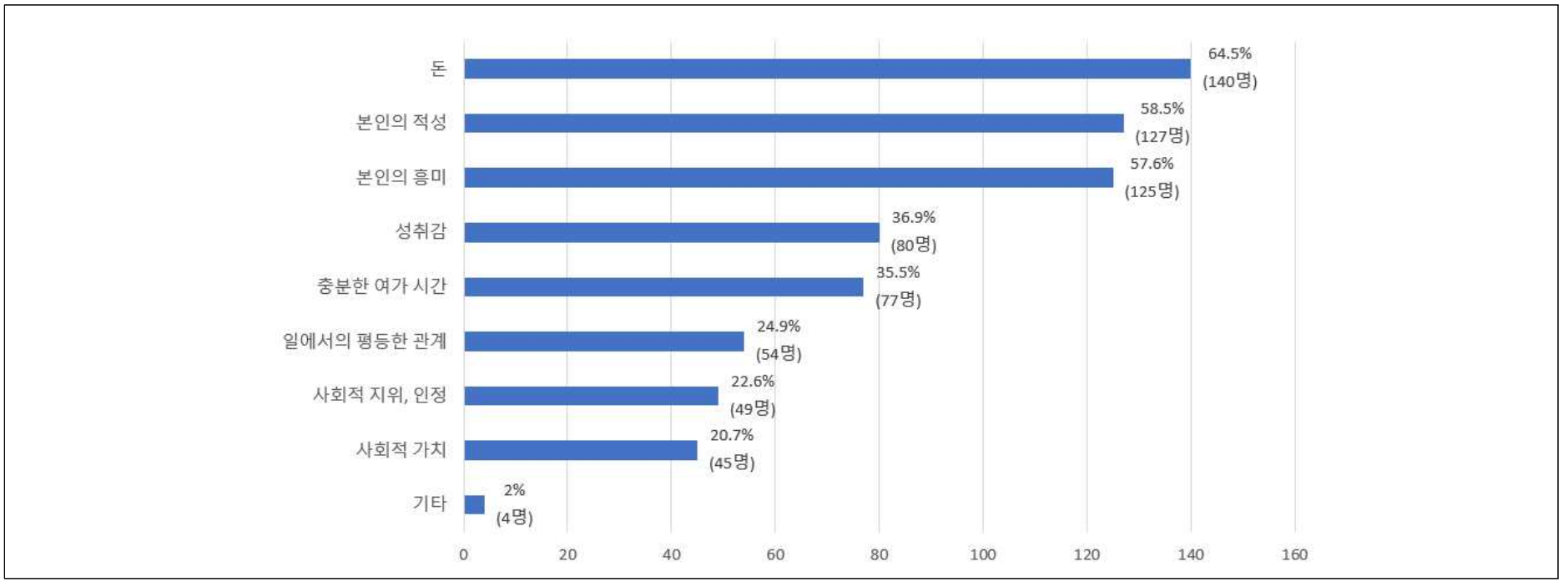
- 217명 응답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14.7%(32명)가 '매우 그렇다', 36.9%(80명)가 '그렇다', 30.4%(66명)가 '보통이다', 13.8%(30명)가 '그렇지 않다', 4.1%(9명)가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했다. **위 응답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51.6%로 절반을 넘었고, '알고 있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응답 17.9%보다 약 3배 더 높게 나타났다.**

(3) 직업적인 일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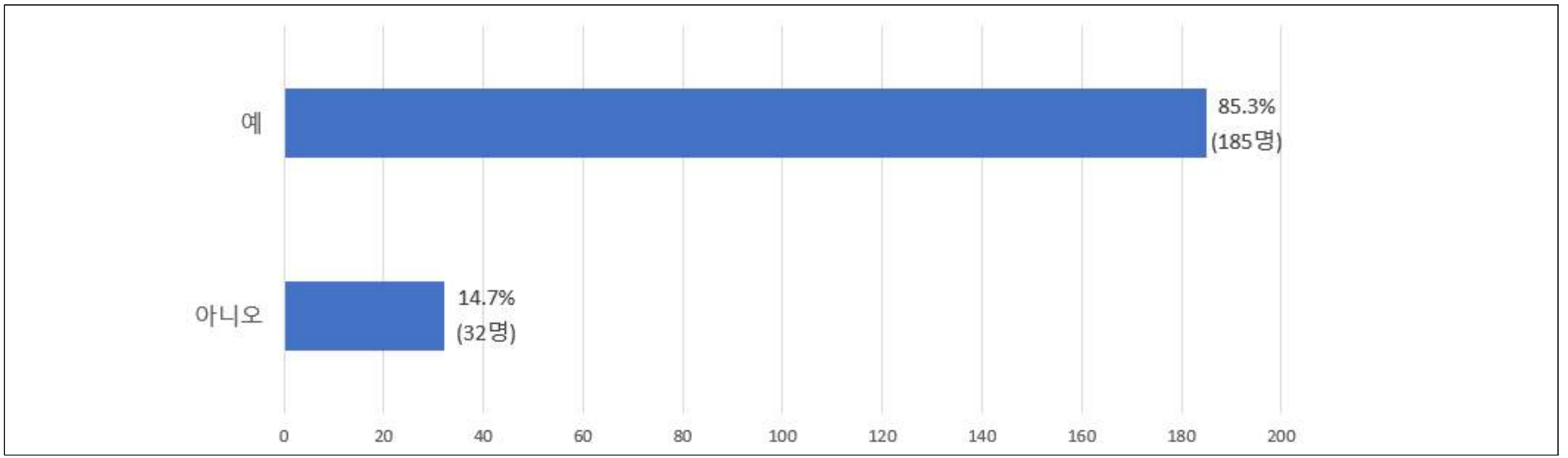
- 217명 / 701개 응답 (중복 응답 가능)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64.5%(140명)가 '돈', 58.5%(127명)가 '본인의 적성', 57.6%(125명)가 '본인의 흥미', 36.9%(80명)가 '성취감', 35.5%(77명)가 '충분한 여가 시간', 24.9%(54명)가 '일에서의 평등한 관계', 22.6%(49명)가 '사회적 지위, 인정', 20.7%(45명)가 '사회적 가치', 2%(4명)가 '기타'에 응답하였다. '기타'에 대한 응답으로는 편한 인간관계, 고용의 안전, 자녀 케어 가능 등이 있다. 이 중 **'돈'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고 그다음으로 **'본인의 적성'과 '본인의 흥미'**가 높은 응답을 보인다. 대다수 참여자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돈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본인의 적성'과 '본인의 흥미'를 선택**하였다.

(4) 귀하는 직장을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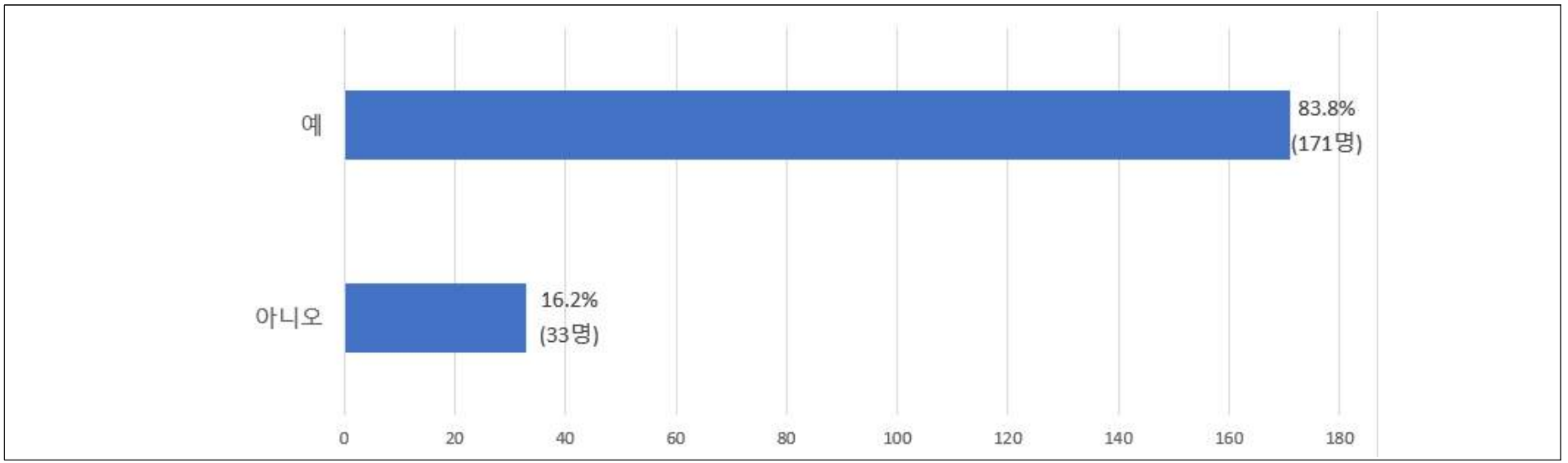
- 217명 응답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85.3%(185명)가 '예', 14.7%(32명) '아니오'에 응답하였다.

(5) 귀하는 직장을 그만두신 경험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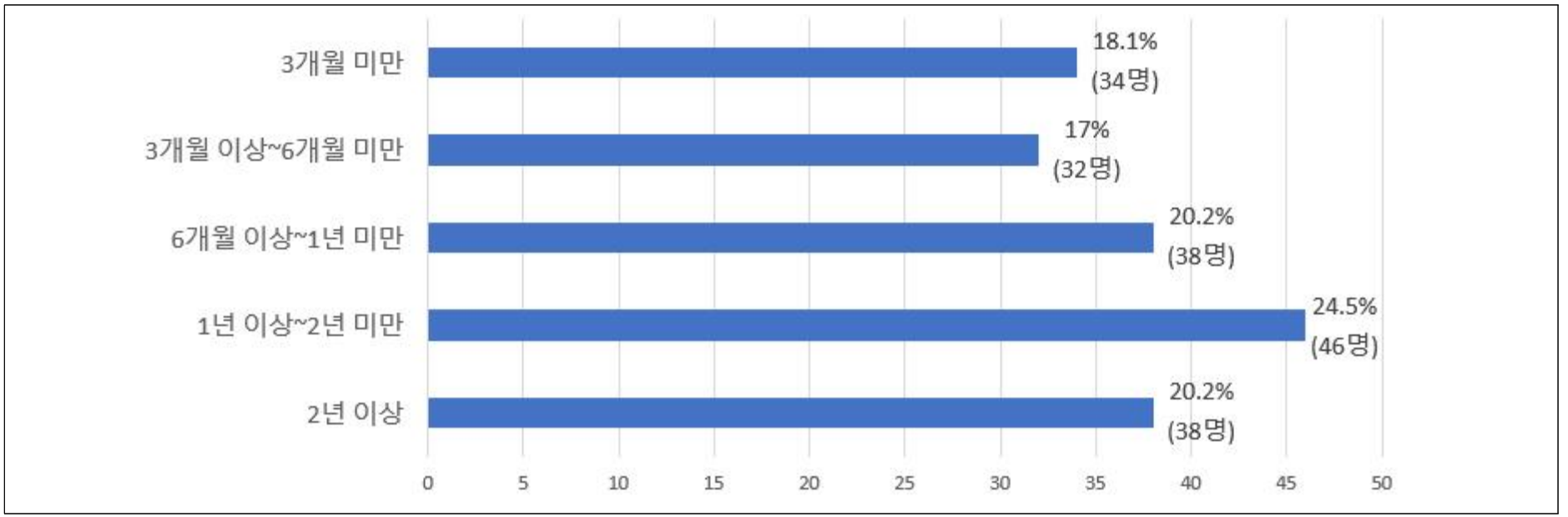
- 204명 응답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83.8%(171명)가 '예', 16.2%(33명) '아니오'에 응답하였다.

(6) 귀하가 취업의 경험이 있다면 첫 직장을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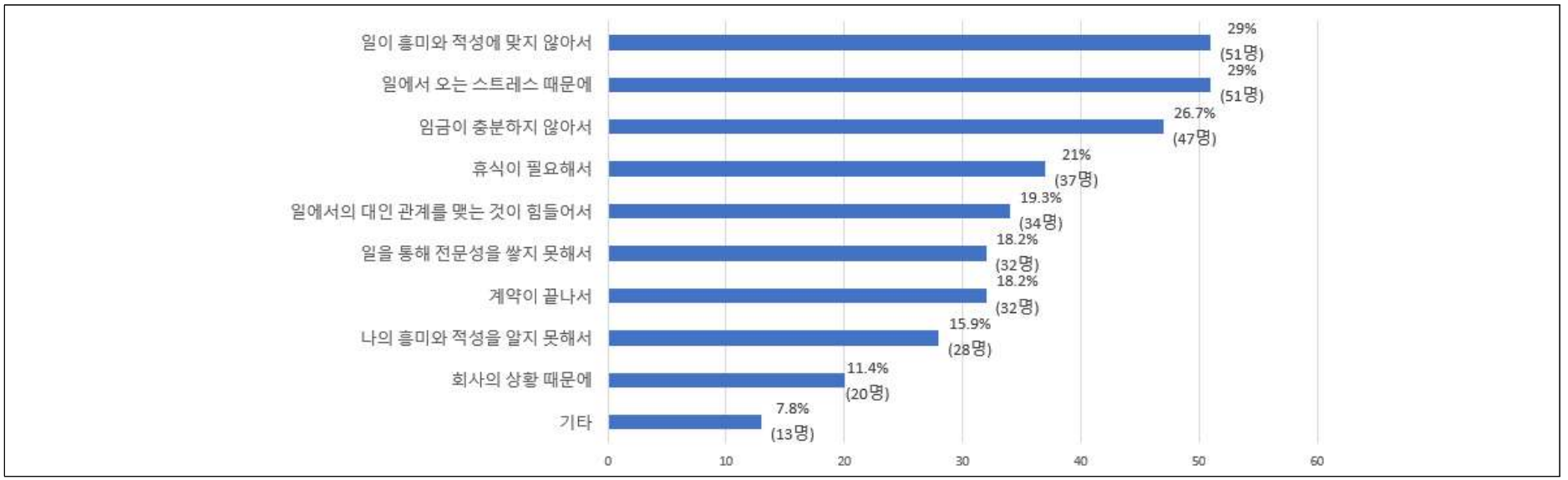
- 188명 응답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18.1%(34명)가 '3개월 미만', 17%(32명)가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0.2%(38명)가 '6개월 이상~1년 미만', 24.5%(46명)가 '1년 이상~2년 미만', 20.2%(38명)가 '2년 이상'에 응답하였다. **이 중 '1년 이상~2년 미만'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다. 그다음으로 '6개월 이상~1년 미만'과 '2년 이상'이 높은 응답을 보인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5.3%(104명)가 취업 후 첫 직장에서 1년 이내 퇴사하였다.**

(7) 귀하가 첫 직장을 그만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176명 / 345개 응답 (중복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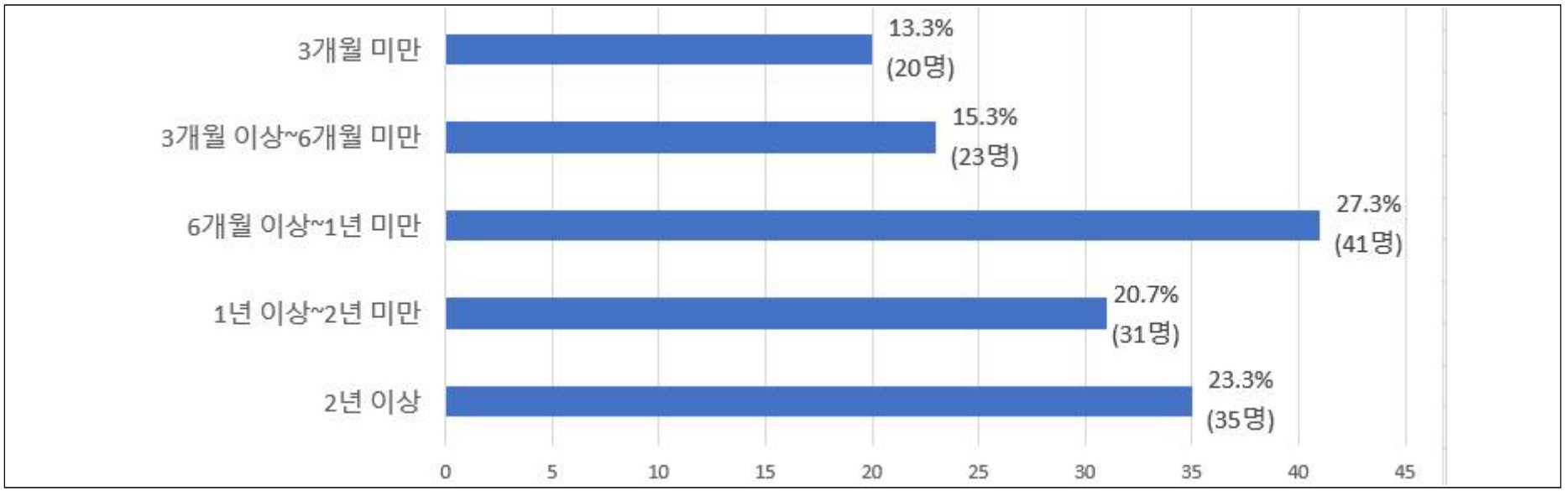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29%(51명)가 '일이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아서', 29%(51명)가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26.7%(47명)가 '임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21%(37명)가 '(번 아웃, 무기력 등으로 인해) 휴식이 필요해서', 19.3%(34명)가 '일에서의 대인 관계를 맺는 것이 힘들어서', 18.2%(32명)가 '일을 통해 전문성을 쌓지 못해서', 18.2%(32명)가 '계약이 끝나서', 15.9%(28명)가 '나의 흥미와 적성을 알지 못해서', 11.4%(20명)가 '회사의 상황 때문에 (해고, 폐업 등)', 7.8%(13명)가 '기타'에 응답하였다. '기타'에 대한 응답으로는 가족의 돌봄, 통근 시간, 학업, 건강상 이유, 직장 내 환경 문제 등이 있다. 이 중 '**일이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아서**'와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다. 그다음으로 '**임금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높은 응답을 보인다.

앞에 나왔던 질문 및 응답과 연결해보면 **입시·시험 위주의 정규교육과정이 개인의 삶의 방향성 확립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이것이 첫 직장을 빨리 그만두게 하는 원인**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위의 '**직업적인 일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질문에서 '돈' 이외에 '**본인의 적성과 흥미**'라고 응답한 것과 비슷한 결로 파악할 수 있다.

(8) 귀하가 2회 이상 취업 경험이 있다면, 마지막 직장을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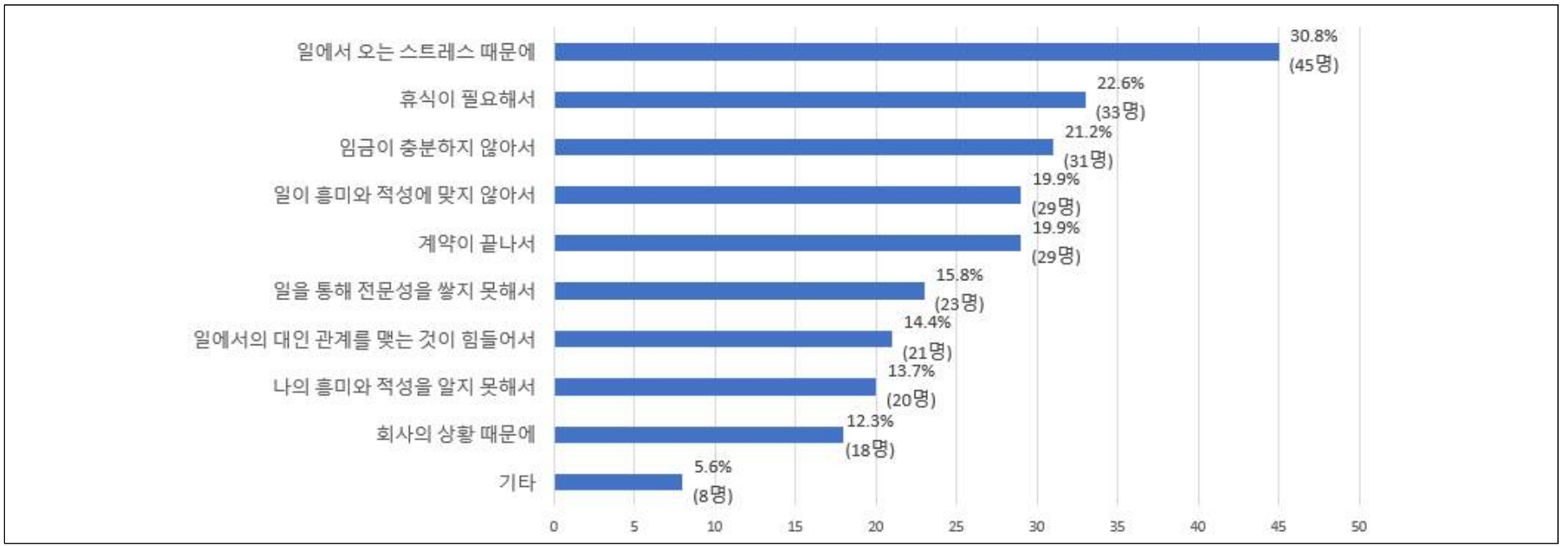
- 150명 응답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13.3%(20명)가 '3개월 미만', 15.3%(23명)가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7.3%(41명)가 '6개월 이상~1년 미만', 20.7%(31명)가 '1년 이상~2년 미만', 23.3%(35명)가 '2년 이상'에 응답하였다. **이 중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다. 그다음으로 '2년 이상'이 높은 응답을 보인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5.9%(84명)가 취업 후 마지막에 근무한 직장에서 1년 이내 퇴사를 한 경험이 있다.**

(9) 귀하가 2회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다면, 마지막 직장을 그만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146명 / 257개 응답 (중복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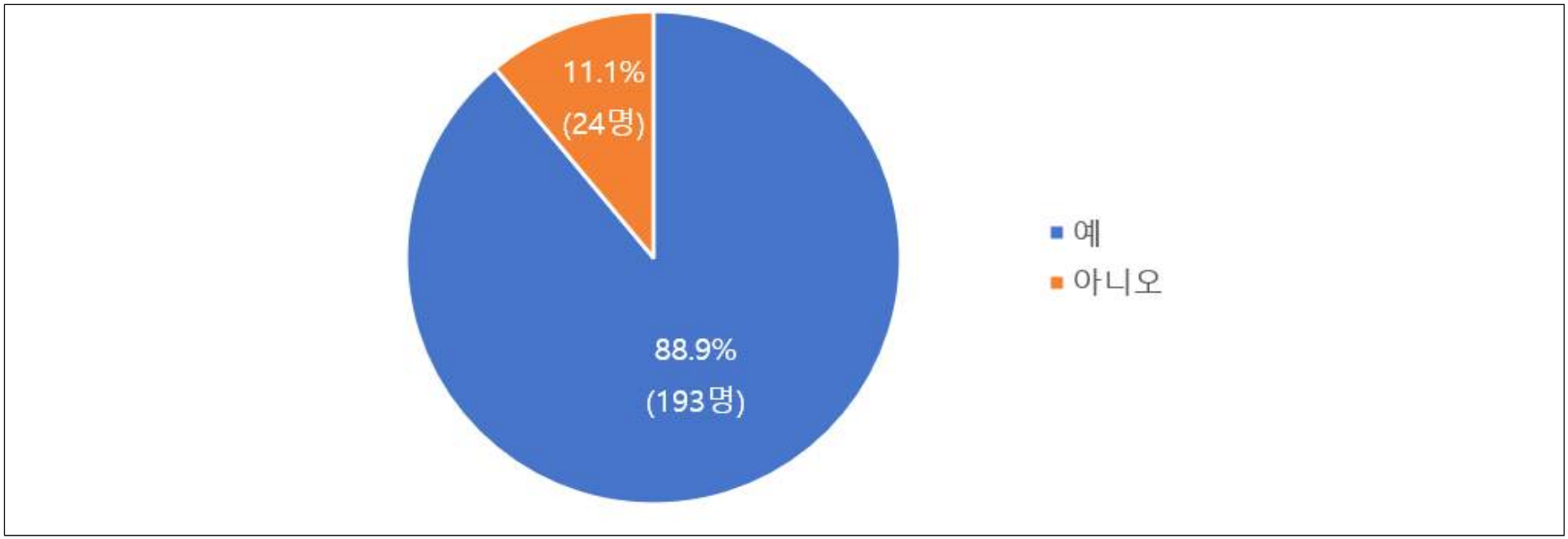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30.8%(45명)가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22.6%(33명)가 '(번아웃, 무기력 등으로 인해) 휴식이 필요해서', 21.2%(31명)가 '임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19.9%(29명)가 '일이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아서', 19.9%(29명)가 '계약이 끝나서', 15.8%(23명)가 '일을 통해 전문성을 쌓지 못해서', 14.4%(21명)가 '일에서의 대인 관계를 맺는 것이 힘들어서', 13.7%(20명)가 '나의 흥미와 적성을 알지 못해서', 12.3%(18명)가 '회사의 상황 때문에 (해고, 폐업 등)', 5.6%(8명)가 '기타'에 응답하였다. '기타'에 대한 응답으로는 경영 악화, 건강상 이유, 회사의 이전, 이직 등이 있다. **이 중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다.**

5) 니트족 자립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인식

(1) 귀하는 직업훈련 외에 니트족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이 귀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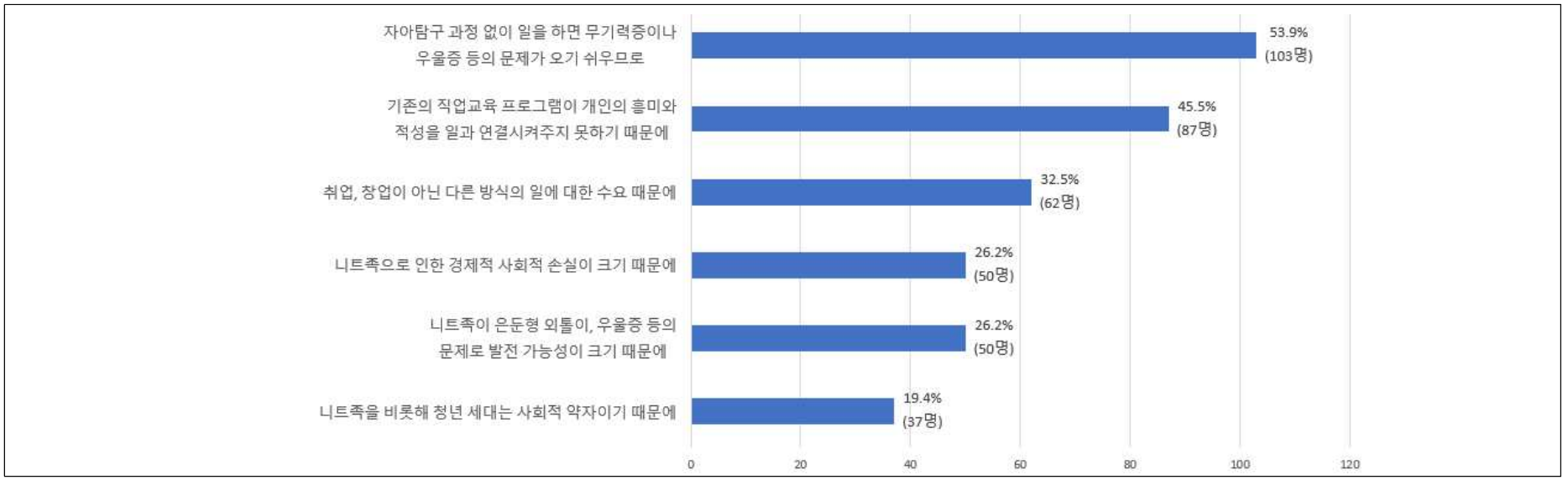
- 217명 응답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88.9%(193명)가 '예'**, 11.1%(24명)가 '아니오'에 응답하였다.

(2) 귀하가 니트족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91명 / 389개 응답 (중복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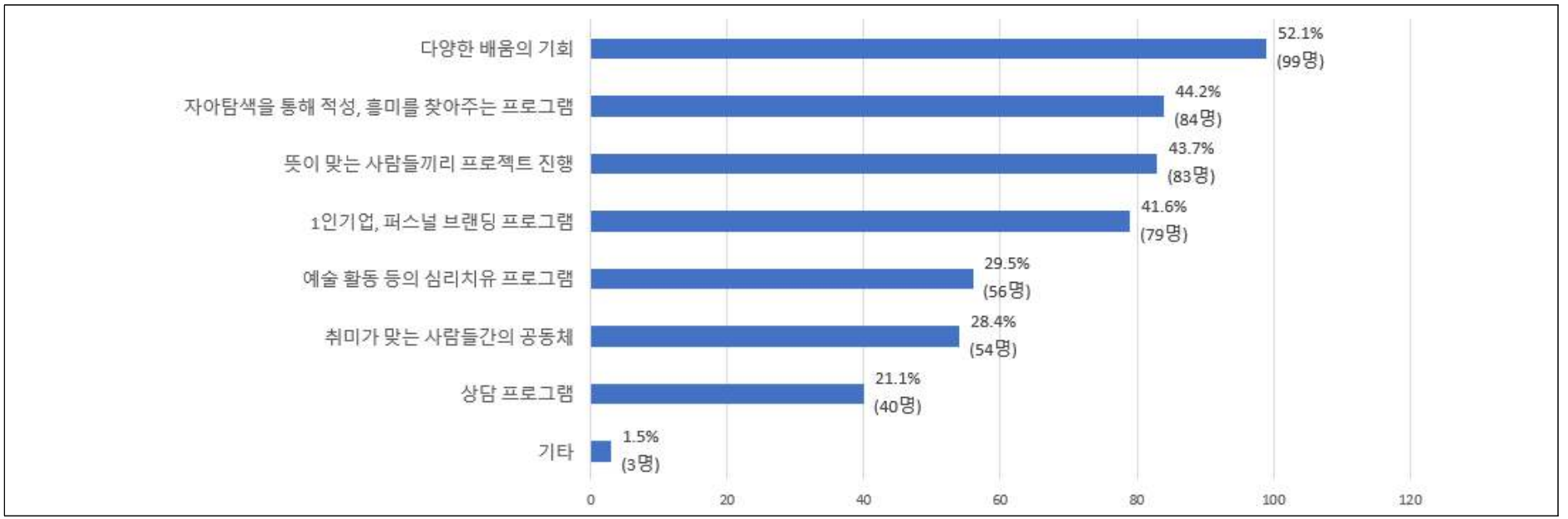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53.9%(103명) '자아탐구 과정 없이 일하면 무기력증이나 우울증 등의 문제가 오기 쉬우므로', 45.5%(87명)가 '기존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일과 연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32.5%(62명)가 '취업, 창업이 아닌 다른 방식의 일에 대한 수요 때문에', 26.2%(50명)가 '니트족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26.2%(50명)가 '니트족이 은둔형 외톨이, 우울증 등의 문제로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9.4%(37명)가 '니트족을 비롯해 청년 세대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에 응답하였다. 이 중 '자아탐구 과정 없이 일하면 무기력증이나 우울증 등의 문제가 오기 쉬우므로'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다. 그다음으로 '기존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일과 연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가 높은 응답을 보인다.

이 문답에서 **자아 탐색 및 진로 방향과 직업 안에서의 흥미 적성이 일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하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3)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190명 / 498명 응답 (중복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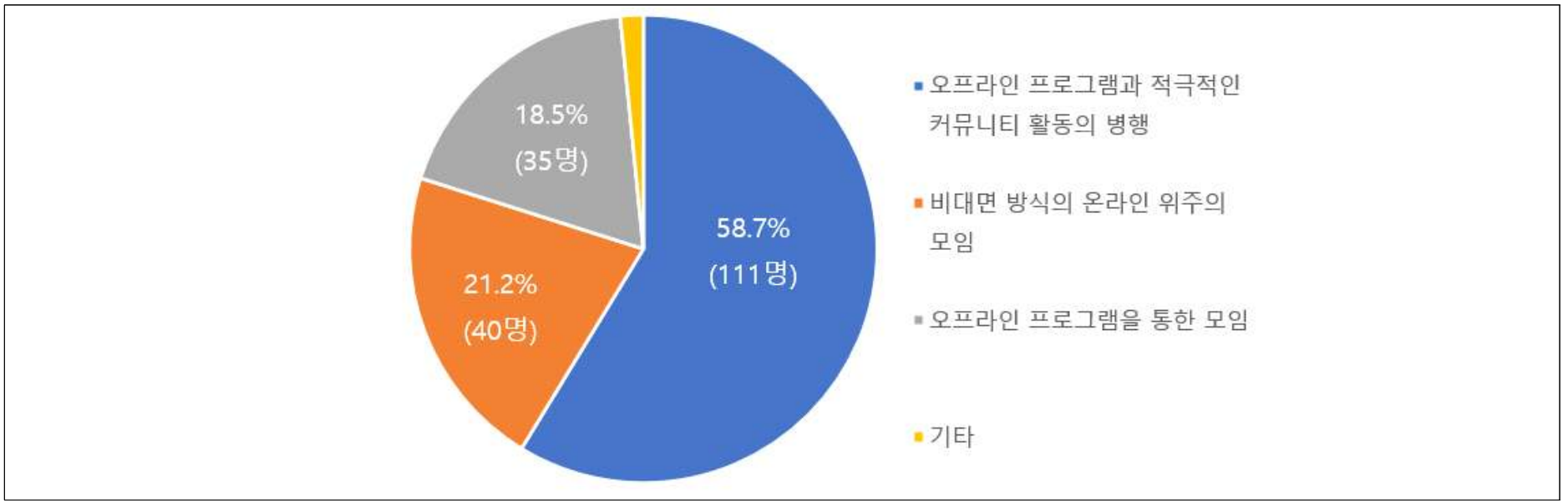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52.1%(99명)가 '다양한 배움의 기회 (예술, 요리, 동영상 제작 등)', 44.2%(84명)가 '자아 탐색을 통해 적성, 흥미를 찾아주는 프로그램', 43.7%(83명)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프로젝트 진행', 41.6%(79명)가 '1인기업, 퍼스널 브랜딩 프로그램', 29.5%(56명)가 '예술 활동 등의 심리치유 프로그램', 28.4%(54명)가 '취미가 맞는 사람 간의 공동체', 21.1%(40명)가 '상담 프로그램', 1.5%(3명)가 '기타'에 응답하였다. '기타'에 대한 응답으로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 공동체 프로그램, 삶의 방식에 대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 중 '다양한 배움의 기회(예술, 요리, 동영상 제작 등)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다. 그다음으로 '자아 탐색을 통해 적성, 흥미를 찾아주는 프로그램'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프로젝트 진행'과 '1인기업, 퍼스널 브랜딩 프로그램'이 높은 응답을 보인다.

대다수 응답자가 '다양한 배움 혹은 체험의 기회', '자아 탐색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프로젝트 진행의 기회제공 및 1인기업, 퍼스널 브랜딩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후자의 수요는 **'(직장과 사업이 아닌)자신의 일을 하고 있지만, 수익화가 어려운 사람', '직장에 다니면서 다른 일을 준비하는 사람' 유형**과 연관이 깊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4) 선호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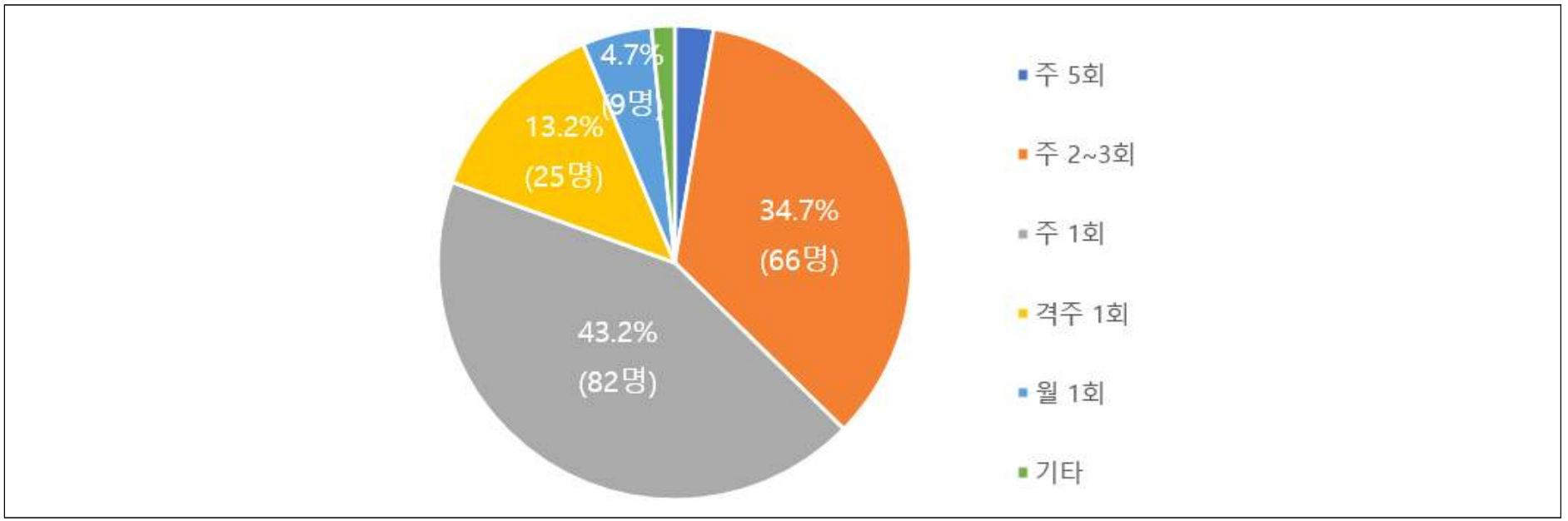
- 189명 응답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58.7%(111명)가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커뮤니티 활동의 병행', 21.2%(40명)가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위주의 모임', 18.5%(35명)가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한 모임', 1.5%(3명)가 '기타'에 응답하였다. **이 중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커뮤니티 활동의 병행'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선호가 돋보였는데, 직업과 소속이 없는 니트족 외에도 회사생활을 하는 잠재적 니트족 유형도 회사의 위계에서 벗어난 커뮤니티 등의 대안적 인간관계에 갈증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5) 프로그램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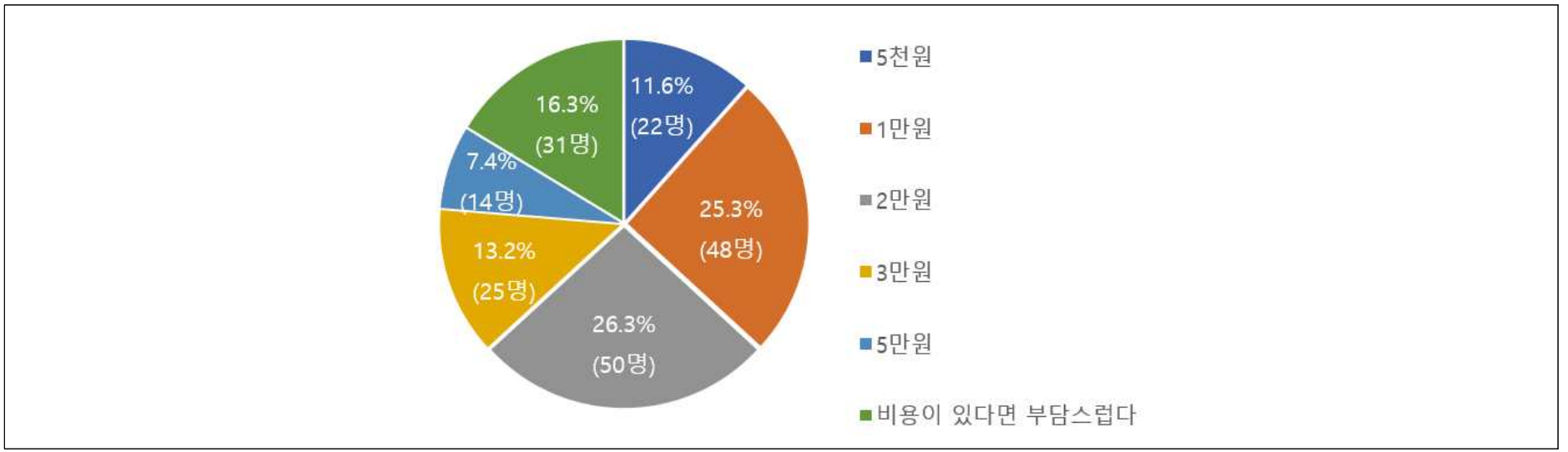
- 190명 응답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2.6%(5명)가 '주 5회', 34.7%(66명)가 '주 2~3회', 43.2%(82명)가 '주 1회', 13.2%(25명)가 '격주 1회', 4.7%(9명)가 '월 1회', 1.5%(3명)가 '기타'에 응답하였다. '기타'에 대한 응답으로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함, 많을수록 좋다 등이 있다. **이 중 '주 1회'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고, 다음으로는 '주 2~3회'가 높은 응답을 보인다. 이를 통해 매주 1~3회 사이에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6) 만약 위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1회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나요?

- 190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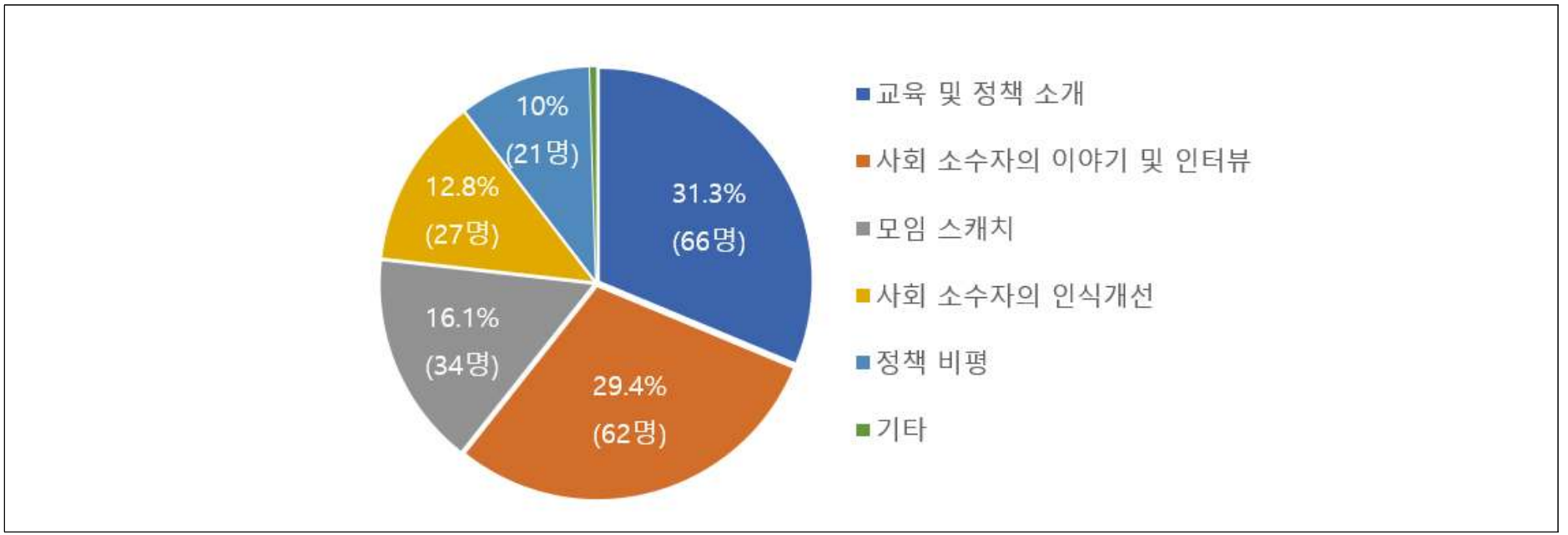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11.6%(22명)가 '5천 원', 25.3%(48명)가 '1만 원', 26.3%(50명)가 '2만 원', 13.2%(25명)가 '3만 원', 7.4%(14명)가 '5만 원', 16.3%(31명)가 '비용이 있다면 부담스럽다'에 응답하였다. **이 중 '2만 원'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다. 그다음으로 '1만 원'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7) 귀하가 니트족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5명 응답

퀄리티, 전문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
자아 탐색 등의 프로그램이 중요해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시간상으로 여유가 없어서
프리랜서로 이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흥미와 적성은 본인이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함
프로그램 불확실
처음이라 모름
해봤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고 참여할 에너지가 없음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
니트족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니트족이긴 하지만 나아가고 싶은 길은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것으로 성공할 거라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함.

(8) 만약 사회비행자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다면 어떤 영상이 업로드되길 바라나요?

- 211명 응답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31.3%(66명)가 '교육 및 정책 소개', 29.4%(62명)가 '사회 소수자의 이야기 및 인터뷰', 16.1%(34명)가 '모임 스케치', 12.8%(27명)가 '사회 소수자의 인식개선', 10%(21명)가 '정책 비평', 0.5%(1명)가 '기타'에 응답하였다. '기타'에 대한 응답으로는 긍정적인 효과와 결과, 실제 치료받은 후 좋아진 후기 등이 있다. **이 중 '교육 및 정책 소개'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다. 그다음으로 '사회 소수자의 이야기 및 인터뷰'가 높은 응답을 보였다.**

4. 결과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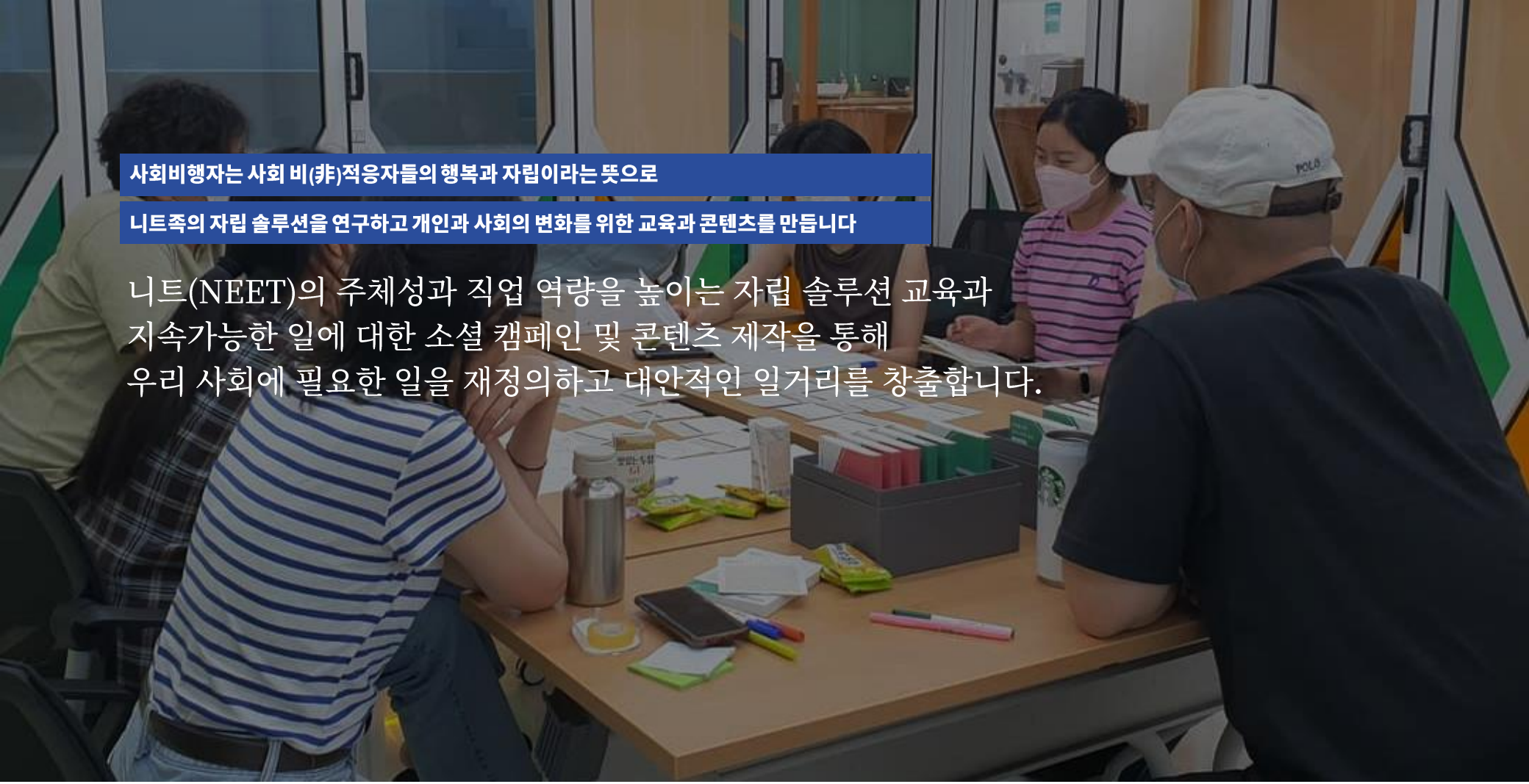
이번 설문을 통해서 니트족 청년들의 노동, 교육, 직업훈련 실태를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현재 정부·지자체 시행 직업 훈련프로그램의 만족도 파악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 설문 조사에서 대부분 응답자가 직업훈련 경험에 따른 불만족의 이유로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없다'에 응답하였고, '취업률 등 성과 위주의 프로그램'이 정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직업훈련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니트족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배움의 기회', '자아 탐색을 통한 적성 및 흥미 탐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성과 중심의 취·창업 프로그램보다 개인의 삶의 방향성을 찾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흥미·적성을 알고 있다는 답변이 그렇지 않은 답변보다 약 3배가량 높은 데 비해서 자립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높은 이유도 눈여겨 볼만하다. 흥미·적성과 연관된 분야의 교육프로그램 부재와 그 분야의 경제적 활동을 통한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생겼다. 이에 따라 개인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 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의 일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게 보인다. 일에서의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에 우리 (사회)가 제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떤 방식의 프로그램이 흥미와 적성을 효과적으로 찾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으로 연구와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려 한다.

[별첨] 설문조사 내용

설문조사 내용			
0. 기본 설문	**0-1.** 당신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0-2. (‘예’ 응답 시) 귀하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체크해주세요.		
	0-3. (‘아니오’ 응답 시) 귀하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체크해주세요.		
A. 정규 교육 경험 및 만족도	**A-1.**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A-2. 귀하가 대학진학을 했을 경우 전공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3. 대학에서 수업 혹은 기타프로그램이 귀하의 흥미·적성과 직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나요?		
	A-4. 대학교 이전까지 교육과정 및 학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귀하의 흥미·적성 혹은 꿈을 찾아주려고 노력했나요?		
B. 직업훈련 경험의 여부와 만족도	**B-1.** 귀하는 정규 교육 외에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	**B-2.** 귀하가 직업훈련을 받았을 경우 어떤 직업훈련을 받으셨나요?
			B-3. 귀하의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B-4. (만족도가 1, 2일 경우) 귀하가 받은 직업훈련의 만족도에 따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B-5. 정부의 직업훈련 정책이 가진 문제는 왜 나온다고 생각하나요?
			B-6. (만족도가 3, 4, 5일 경우) 귀하가 받은 직업훈련의 만족도에 따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B-7. 귀하가 받은 직업훈련을 통해 실제 유사 분야의 직업을 구직하게 되셨나요?

<table>
<tr><td></td><td></td><td>아니오</td><td colspan="2">B-8.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td></tr>
<tr><td rowspan="9">C. 직업에 대한 가치 인식</td><td colspan="4">C-1. 나는 최근 3년 이내에 직업 혹은 자아에 대한 객관적 평가(진로검사, 진로상담 등)를 받아 본 적이 있다.</td></tr>
<tr><td colspan="4">C-2. 나는 나의 흥미·적성을 알고 있다.</td></tr>
<tr><td colspan="4">C-3. 직업적인 일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td></tr>
<tr><td colspan="4">C-4. 귀하는 직장을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까?</td></tr>
<tr><td colspan="4">C-5. 귀하는 직장을 그만두신 경험이 있습니까?</td></tr>
<tr><td colspan="4">C-6. 귀하가 취업의 경험이 있다면, 첫 직장을 얼마나 다니셨습니까?</td></tr>
<tr><td colspan="4">C-7. 귀하가 첫 직장을 그만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td></tr>
<tr><td colspan="4">C-8. 귀하가 2회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다면, 마지막 직장을 얼마나 다니셨습니까?</td></tr>
<tr><td colspan="4">C-9. 귀하가 2회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다면, 마지막 직장을 그만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td></tr>
<tr><td rowspan="7">D. 니트족 자립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인식</td><td rowspan="7">D-1. 귀하는 직업훈련 외에 니트족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이 귀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td><td rowspan="5">예</td><td>D-2. 귀하가 니트족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td><td rowspan="6">D-8. 만약 사회비행자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다면 어떤 영상이 업로드되길 바라나요?</td></tr>
<tr><td>D-3.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td></tr>
<tr><td>D-4. 선호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td></tr>
<tr><td>D-5. 프로그램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td></tr>
<tr><td>D-6. 만약 위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1회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나요?</td></tr>
<tr><td>아니오</td><td>D-7. 귀하가 니트족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td></tr>
</table>



사회비행자는 사회 비(非)적응자들의 행복과 자립이라는 뜻으로

니트족의 자립 솔루션을 연구하고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위한 교육과 콘텐츠를 만듭니다

니트(NEET)의 주체성과 직업 역량을 높이는 자립 솔루션 교육과
지속가능한 일에 대한 소셜 캠페인 및 콘텐츠 제작을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재정의하고 대안적인 일거리를 창출합니다.

- 청년 니트 교육 모듈 개발 및 맞춤 위탁 운영
- 지역사회 기반 일자리 청년 인력 매칭
- 청년, 일자리 관련 학술연구
- 영상 및 콘텐츠 제작
- 각종 행사 및 소셜 캠페인 기획, 운영

Profile

청년 니트가 온전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주체적 직업(사회)인이자, 시민으로 성장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통해, 당사자 및 개인과 사회와의 호혜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 자립을 만들어 갑니다.

Social Mission 일에서 지속성을 찾지 못하는 청년의 자아탐색과 직업능력 강화를 통해 주체적 역량을 키워주며, 지역사회의 현안 및 과제와의 매칭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안적 일거리를 제공

01	02	03
노동 (물질적 지속가능성)	예술 (정신적 지속가능성)	운동 (사회적 지속가능성)

Vision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재 그대로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기"

함께하는 파트너

- ROAD TO CAREER · 취업솔루션
-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HikikomoriSupport Association Korea · 은둔청년전문지식및서비스

연혁 및 계획

2019~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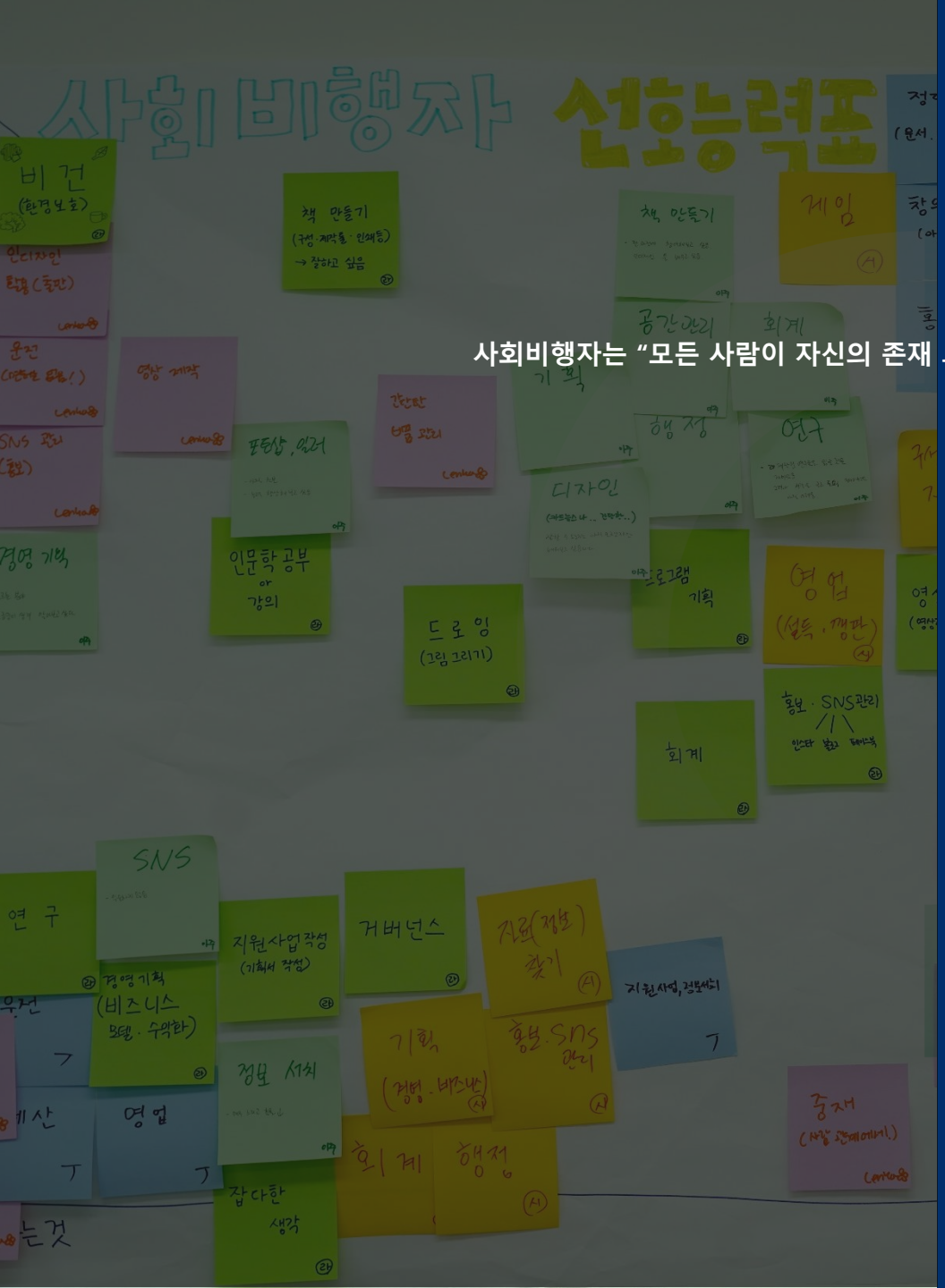
- 단체결성(2019)
-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10기선정(2020)
- 사회비행자법인설립(2020)

2021~2022

- 예비사회적기업출범(2021예정)
- 사회적기업진입(2022예정)
- 니트청년학교운영
- 청년지역상생00프로젝트운영

주요 클라이언트

서울특별시 · 강남구 GANG NAM GU ·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청년허브 · 청년재단 Korea Youth Foundation ·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구로문화재단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회비행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재 그대로 살 수 있는 세상 " 을 만들겠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서,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나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으면 합니다.

이메일: societypilot@gmail.com

연락처: 010-8695-2102

Website: https://blog.naver.com/societypilot

Instagram:/Facebook @societypilot

사무실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3길 10, 604호